



# 독립정신 7

60호 2011년 11,12월호

# 사진으로 보는 독립정신

2011년 7월 20일(토)

## 「독립정신」답사단 세미나

‘살신성인’

선열들의 독립정신에

숙연한 찬탄이 쏟아집니다.

선열들의 애국혼이 빛바라지 않도록

가슴깊이 되새기겠습니다.



- 시로 읽는 독립정신 -

# 일본놈 일어서니

작자 : 미상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 마라

일본놈 일어서니

조선 사람 조심해라

출전 : 『韓國民謠集』 『任東權編』

민중 간에 불려졌던 민요 속에 민족주의 정신이 드러날 정도로 당시 우리 민족이 외압에 시달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먼 훗날을 날카롭게 예견하고 경고하고 있는 점도 놀랍다. 다만 오늘에 이르러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면,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이후에 “중국 사람 중시해라” 라는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 시 선정 : 홍일선 (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2011 11\*12

통권 60호

#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권두언 \_  
왜 다시 한일협정이 문제인가?  
| 이 부 영

06 다시보는 좋은기사 \_  
이승만은 독립의 '훼방꾼'  
| 김 자 동



09 특집 \_  
KBS 이승만 찬양방송을 규탄한다.  
| 정 동 익

14 연간기획 \_  
의열투쟁 올바로 이해하기  
- 1920년대를 중심으로  
| 김 영 범



21 독립운동 \_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약산 김원봉  
| 김 삼 용

27 특별기고 \_  
독립운동의 방법론 - 외교론과 무장투쟁론  
| 장 세 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학노, 이일선, 김덕훈, 김현모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40    답사단 기행문 최우수작 \_  
 무명의 新興용사를 추모하며  
 | 정 광 형

50    답사단 기행문 우수작 \_  
 나의 獨立精神 답사기  
 | 임 대 현

56    영화읽기 \_  
 영화 <비우티풀>, 세계 속의 삶  
 | 이 두 희

61    백년편지 \_  
 백하 김대락 선생님께  
 | 이 향 증

67    임정서가 \_  
 장강일기, 서간도에 들꽃 피다,  
 사쿠라 불나방  
 | 편 집 부

70    독립정신 이모저모



# 왜 다시 한일협정이 문제인가? 일제 피해자 현안, 일본정부의 외면으로 모두 막혀...



이 부 영  
민주·평화·복지 포럼 상임대표  
동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장

우리는 잇을 만하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장면을 보게 된다. 집회가 1천 몇 번째라고 나온다. 매주 하는 집회가 1천 회를 넘겼다면, 집회를 하는 쪽도 대단하지만 집회의 항의 대상이 된 쪽도 어지간하다.

이 일이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역사의 응어리로 이어져온 일이라면 1천 회가 아니라 2천 회, 3천 회로 이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통한의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이 할머니들의 정부가 제 일 아니라는 투로 방관했다는 점이다. 그러니 집회의 항의 대상인 일본 정부가 거들떠보았겠는가. 이런 정부를 믿고 세금 내고 살아온 국민이 너무 착하고 불쌍하다.

지난 8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이하 현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원폭 피해자들, 사할린 등지의 미귀환동포들의 피해자 배상문제를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인데도 그 동안 외면하고 방치한 자세는 ‘위헌’ 이라고 결정했다. 사실 현재가 이 판결을 하기까지 여러 해째 피해자들의 심판청구를 심리하지 않은 것도 의무를 방기한 것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판결이 있자 해당부서인 외교부는 일본에게 협의 요청을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거절당했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에 체결한 ‘한일협정’의 부속협정인 ‘청구권 ·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는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 규정을 들어 한국 측 민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 제3조는 “이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양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3조에 근거해서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회를 통한 협의 요청을 했지만 일본정부는 거부했다.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생존자는 61명뿐이다. 원폭 피해자, 미귀환동포, 징병 · 징용 피해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엄청난 민간인 피해자들이 1965년 당시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박정희 정권은 무슨 이유로 어처구니없는 조약 체결을 했는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해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는 밝혀내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배상 · 보상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이제 군부독재시대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제 국민들의 한을 그대로 묻어두라는 태도는 민주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 이 나서는 이유다. 46년 전에 잘못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워보자는 민주시민들의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한 일친선, 진정한 이웃으로 한국과 일본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더 늦춰서는 안 되는 일이 새로운 ‘한일협정’ 을 맺는 것이다. (G)

# 이승만은 독립의 ‘훼방꾼’

(한겨레신문 8월 13일)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국민의 시청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한국방송>(KBS)이 일련의 반민족적 방송을 계획하는 것을 보고 침묵을 지킬 수 없어 몇 자 적어 보려 한다.

한국방송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려는 것은 우리의 헌법을 무시한 행동이다. 1987년의 민주혁명으로 선출된 새 국회는 그 해 10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우리나라의 법통과 이념을 명시해 놓았다.

4.19 민주혁명은 바로 이승만의 폭정에 항거한 것으로 이때 이승만 독재정권은 타도되었으며 그의 동상은 시민들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선엽 미화에 이어 이승만 찬양방송 특집 5부작을 제작한 것은 대한민국의 항일투쟁과 4.19 민주이념을 말살하려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인 것이다.

이승만의 죄행 중 상당부분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나는 이승만 미화 공작에 대응하여 그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우리 독립에 ‘훼방’을 한 일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주미한국위원회(대표부)를 설치하며 이승만을 대표로 임명했다. 그 때 임시정부에서는 그가 독선적이며 고립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



▲ 주택가에 방치됐었던 2개의 이승만 동상

었다. 미주 한인 항일세력들은 이승만에게 호감을 갖지 않은 사람까지도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이승만은 이들의 협력을 거절했다.

1943년 11월 카이로 회의에 참가한 미국·영국·중국 3국 지도자는 “세 나라는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in due course)’ 한국이 자유롭게 독립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대표자로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적어도 루스벨트에게 한국은 일제에 강제 병탄되기 전까지 오랜 독립국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과 우리 국민은 충분한 독립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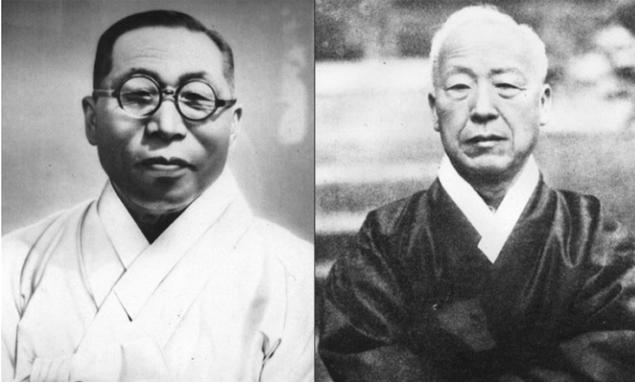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유엔)회의가 열려 유엔현장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서 유엔이 창립됐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거의 전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쪽에 가담했던 국가들이었다. 특히 국토가 독일 점령 아래 있는 런던의 망명정부들도 대부분 회의에 초청되었다.

중국국민정부의 주장대로 임시정부의 대표도 초청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임시정부에서는 대표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부주석인 김규식 박사, 부단장은 조소앙 외무부장, 단원은 정환범 차장으로, 세 명은 중국정부에서 발급한 여권도 받았으며 중국정부로부터 필요한 미화 대부 승인까지 받고 있었다. 그런데 미 국무부 당국에서는 임시정부의 참여를 위해 재미 한인이 구성한 연합체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사실 임시정부에서는 당시 무엇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얼마 전 나는 1978년 서울의 판문출판사에서 발견했으나 일반 판매는 안 된 <이승만과 미국의 한국참여, 1942~1960>(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이라는 책을 읽을 기회가 생겼다. 이 책의 저자는 이승만을 가장 존경했으며 경무대의 고문관으로 있었던 로버트 T.올리버였다. 여기에 한국의 유엔창립 참여가 무산된 경위에 관한 부분(위의 책 15쪽)을 그대로 옮긴다.

“한국의 여러 민족주의 분파는 국무부의 고무와 실제적 협조 하에 ‘통합한인위원회’로 편입되도록 한다. 여기서 기대하는 바는 전 한국의 연립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력을



▲ 김구와 이승만

얻는 데 있다.

충칭에서는 김구가 중국정부의 상당한 지지하에 한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다.

이곳 미국에는 한길수와 김용중이 한국의 어떠한 정권이든 수립하는데 있어서 미국과 유엔의 지지를 받기 위한 연합 형태에 찬동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이런 연합체는 한국을 공산주의자에게 내주는 것으로 여겼으므로 통합한인위원회와의 관계를 끊었다. 한과 김의 연합체 구상은 동시에 미국의 정책이었으므로 통합위원회는 이(승만)의 입장을 거부했다.

이 박사는 미 국무부의 비난과 한인 반대자들의 심한 질타를 받으며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워싱턴으로 귀환했다.”

이승만의 이런 고집 때문에 미주지역 한인 전체의 지지를 받는 임시정부 대표단이 유엔 창립총회에 참가할 기회가 박탈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가 유엔의 창립회원이 되었다면 임시정부는 소련을 포함한 유엔 참여 각국으로부터 사실상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군사 작전상 미·소가 한국을 분할 점령했다라도, 임시정부는 미·소 등에 있는 망명 한인대표와 국내의 각계 지도자를 포함하는 재조직은 필요했을 수 있지만 유일 합법정부로 국내에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신탁통치를 한다는 말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통일된 한국정부는 자동적으로 승전국으로 대일강화조약에도 참여했을 것이다. 이승만의 ‘훼방’ 때문에 우리는 신생독립국의 대열에서 빠진 상태로 두 조각이 나고만 것이다.

# KBS 이승만 찬양방송을 규탄한다!



정 동 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공영방송 KBS가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재자 이승만 찬양방송을 9월 28일부터 사흘간 강행했다.

원래 8.15에 맞춰 5부작으로 방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월혁명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98개 시민사회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었다.

KBS는 독재자 미화 논란이 거세지자 이승만을 공정하게 다루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으나 우려한대로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중대 과오들을 외면하거나 두둔했다.

독립군과 무고한 양민을 잔혹하게 학살한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 친일파 백선엽을 전쟁영웅으로 미화한 6.25특집극을 방송한데 이어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KBS가 과연 공영방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 친일파 독재자 찬양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

공영방송에서 친일파와 독재자를 드러내놓고 찬양하는 일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이명박정권이 보낸 낙하산 사장이 KBS를 장악하자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더니 급기야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반역방송으로까지 전락하고 만 것이다.



▲ 친일·독재 찬양 방송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KBS는 스스로 언론사임을 포기하고 우리 언론사에 또 한번 추악한 굴종의 역사를 쓰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백선엽을 미화시켜 친일 문제를 희석시키고 이승만을 찬양하여 독재의 허물을 덮음으로써 친일파요 독재자인 박정희의 술한 과오들을 합리화 하려는 이 모든 작태는 이명박 후보 특보 출신 KBS 김인규 사장이 현 정권은 물론 미래권력에까지 잘 보여 한자리 차지하려는 욕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민족 역사 확립과 민족정기 구현에 앞장 서야 할 공영방송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들, 4.19혁명 관련단체 회원들 그리고 언론운동 단체들을 비롯 98개 시민사회 단체가 친일독재찬양방송 저지 비상대책위를 꾸려 지난 6월부터 넉달간 투쟁해왔다.

비대위는 독재자 이승만 찬양방송 중단 김인규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릴레이 단식, 촛불집회, 규탄대회, 가두선전 등 KBS의 친일독재 찬양 행각을 알리고 김인규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벌였다.

그럼 수구세력들이 새삼스럽게 찬양하고 나선 백선엽과 이승만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백선엽은 일제 때 수많은 독립군을 학살한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 중위 출신으로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다. 친일파도 생계형 친일파가 아니라 동족을 총칼로 학살한 1급 민족반역자다. 6.25전쟁 때는 지리산 공비를 토벌한다고 지리산 일대 주민들을 포로수용소에 가둬 수많은 부녀자와 아이들을 얻어 죽고 병들어 죽게 한 사람이다.

그런데 KBS는 지난 6월 14일과 25일 백선엽을 전쟁영웅으로 둔갑시키는 찬양방송을 강행하였다. 방영된 내용을 보면 백선엽의 간도특설대 경력은 모른 척 넘어가고 6.25전쟁 당시의 무용담만 일방적으로 홍보하였다.

KBS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독립투사와 그 후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수많은 시청자들을 욕보인 것이다.

## ◎ 수구세력들이 일제히 찬양하고 나선 백선엽과 이승만

그럼 이승만은 누구인가!

이승만은 1960년 4.19혁명으로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인물이다.

이승만은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187명의 청년학생들을 학살했고 제헌의회에서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설치한 반민특위를 친일경찰을 동원해 해산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해 이 나라를 친일파의 나라로 만든 친일파의 대부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으나 월슨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위임통치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 물의를 빚어 탄핵을 당했다.

안중근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고 윤봉길의사의 거사에 대해 테러는 독립운동을 방해할 뿐이라며 당장 중지하라고 지시하고 하와이 주재 일본 영사관에 찾아가 사죄를 하기도 했다. 최근 한겨레신문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가 월슨 대통령을 만난 것도 고종의 특사 자격이 아니라 친일단체 일진회의 대변인 자격으로 면담했다고 한다.

하와이에 가서도 교민회를 분열시키고 교민들이 모아준 독립자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승만은 가는 곳마다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 정부 수립 후에는 독립운동세력을 탄압했다.

해방 후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앞장서면서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6.25 때는 피난 중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발취개헌안을 통과시켜 재집권을 기도했다.

진보당 조봉암 사법살인, 국민방위군 사건, 제주 4.3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사건 등 그와 관련된 인권탄압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이승만은 6.25전쟁을 전후해 수많은 민간인들과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빨갱이라고 낙인 찍어 1백만 명 이상 학살한 최고 책임자이다.

그는 사사오입 개헌과 3.15부정선거를 획책, 영구집권을 꾀하다 4월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인물이다.

이미 51년 전 국민들로부터 단죄를 받아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인물인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매국노 이완용을 재평가하겠다고 나온다면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 수구 기득권 세력의 집권 위해 부역하는 KBS

그런데도 KBS는 이승만이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6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제작비를 투입하고 반대하는 제작진을 교체하면서까지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말았다.

KBS가 이처럼 친일파와 독재자를 찬양하는 방송을 무리하게 밀어 붙인 이유는 이명박정권 등장 이후 광복절을 소위 건국절로 바꿔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왜곡하려는 친일 뉴라이트 세력의 움직임과 관련돼 있다.

우리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려 친일파라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세탁하려는 속셈이다.

친일수구세력은 친일파를 반공의 상징으로 부각시키고 독재자를 건국의 아버지로 둔갑시켜 종국적으로는 5.16쿠데타마저 미화시킴으로써 수구 기득권 세력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있는 것이다.

KBS가 친일파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 행태보다 더 추악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친일파 독재자 찬양행위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역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헌법정신마저 무시하고 친일파와 독재자 미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KBS가 뻔뻔스럽게도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니 기가 찬 노릇이다.

방송강령에 명시돼 있듯이 방송은 사회적 통합에 도움을 주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KBS의 이승만 찬양방송은 우리 민족사에 찬연히 빛나는 4월혁명을 폭동으로 격하시키고 4월혁명을 짓밟은 5.16쿠데타에 면죄부를 주는 역사왜곡 행위이다.

사회적 통합에 일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기고 특히 친일행위와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할 뿐이다.

## ◎ KBS는 역사와 국민들의 눈이 두렵지도 않은가

일제와 독재정권에 부여한 과거에 대해 반성조차 제대로 한적 없는 수구세력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고 헌법정신마저 무시해 버린다.

수구세력들이 시대역행적인 독재자 복권 시도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도하는 이유는 모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겨 수구기득권 정권을 더 연장해보려는 속셈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KBS는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방송, 신뢰도 1위를 자랑하는 국민의 방송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낙하산 사장이 들어선 이후 정권과 재벌의 나팔수로 전락하더니 급기야 헌법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반역방송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KBS는 이번에 친일과 독재에 뿌리를 둔 수구기득권세력에 부여해 친일파 백선엽과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이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린 KBS를 살리는 길은 KBS를 망치고 있는 MB특보 출신 김인규사장이 즉각 물러나는 길밖에 없다.

KBS는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유린한 책임을 물어 사장을 교체하고 국민들에게 잘못을 사죄해야 한다.

KBS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정권의 나팔수 수구기득권 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계속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 의열투쟁, 올바르게 이해하기

## - 1920년대를 중심으로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 1. 의열투쟁의 개념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독립운동 과정에 다수의 의사와 열사들이 출현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유관순, 이준, 나석주, 강우규, 김상옥 등의 이름은 너무도 유명하게 나와, 이들보다 덜 알려졌거나 묻혀버린 이름의 의·열사들도 많다. 그들이 독립운동 전선에서 독특하게 내보였던 행동방식을 총괄하는 용어로 ‘의열투쟁’이 쓰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와 열사란 과연 어떤 존재이고, 왜 그런 식의 행동을 보여야만 했는지가 더 설명되어야만 한다면, 위와 같은 식의 두루뭉수리한 이해는 아직 미흡하고, 잘해야 동어반복밖에 안되는 것이다.

의사는 의로운 일을 용감하게 결행했다는 행동의 측면을, 열사는 대의를 위해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희생의 측면을 각각 강조하여 붙여지는 칭호이다. 그러면서도 두 경우 모두, 이(利)를 버리고 의(義)로 나아가며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추구하는 자기희생의 길을 감연히 택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의열’이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행동의 장렬함과 그 행동에 깃든 의로움의 가치를 함께 존중하여 기리는 뜻이 담긴 용어라 하겠다.

이러한 의열적 행위양식의 연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오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진

---

왜란 때나 1894년 이래의 반일 의병항쟁에서 확연히 표출되었고, 구한 말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의 여러 의·열사들의 행동과 정신을 통해 그 전통이 큰 꽃을 피웠다. 그리고 3.1운동 이후로 훨씬 더 적극적·조직적·연속적인 성격의 '작탄투쟁'이나 '암살파괴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새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투쟁·운동의 선도대가 될 것을 자임하며 1919년 11월에 탄생한 단체의 이름이 '의열단'이었는데, 그것은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겠다는 '공약'의 문구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것이라 하였다. 이 명명법 속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운동방식의 본의가 정확히 투사되어 있었으니, 의열투쟁은 그런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추출된 역사적 개념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실제적 의미는 개인 또는 집단의 감투정신과 희생정신이 어우러진 공격적 거사 방식의 독립투쟁이었던 것으로 압축시켜 잡아볼 수 있다.

## 2. 의열투쟁의 독립운동 방략화와 실행

비폭력 원칙 하의 만세시위가 대중을 이루었던 3.1운동은 일제의 잔혹한 탄압을 뚫고나가지 못하여 많은 희생을 낸 채 종식되고 말았다. 이에 국외 망명 독립지사들은 무장투쟁과 폭력수단의 동원이 민족독립 달성의 최량의 방도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1919년 가을에 통합정부로 거듭난 상해 임시정부도 외교우선론으로 경도되어 있던 독립운동 노선을 전투적인 방향으로 급선회시키고, 독립전쟁 발동·수행의 장기전략을 수립하였다.

'적기(適機)의 독립전쟁'을 일제 격멸과 절대독립 성취의 최상위 방략으로 삼되, 대일결전의 기회가 도래할 때까지는 민족역량 증강의 '준비' 단계로 설정하고, 이 준비 단계에서는 폭력과 비폭력, 무장과 비무장 수단을 두루 동원하는 복합적 전술로써 일제에 대항해 가기로 독립운동 노선의 기초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전략체계 안에 전쟁 준비의 의미를 띤 3대 전술을 배치하였으니, 일제의 제반 통치질서에 대한 국내 대중의 전면적 거부와 일상적 저항, 만주·노령 지역 중심의 독립군 조직과 무장투쟁 실행, 그리고 국내외 일제기관 및 그 요인과 반민족분자를 겨냥한 작탄투쟁이 그것이었다.

뒤이어 임시정부는 1920년 2월에 '7가살(可殺) 대상'을 공표하여 일제 요인 및 반민족분자 응징

처단의 결의를 천명하였고, 4월경에 공포한 <시정방침>에서도 청년 감사대(敢死隊)와 작탄대(炸彈隊)를 조직해서 ‘적괴(敵魁) 및 창귀(鬼) 격살’과 ‘영조물 파괴’를 단행할 것을 언명하였다. 전담 행동조직에 의한 암살파괴운동을 독립전쟁 준비 단계에서의 유력한 대적 방책으로 설정하고, 그 실행 의지도 거듭 표출시킨 것이다.

이렇듯 임시정부는 진작부터 의열투쟁의 중심부로 들어서고 있었다. 스스로 특정의 거사계획을 주도하고 실행에 적극 개입·지원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임시정부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의열투쟁 거사들도 여럿 있었다. 자주 오해되어 온 것처럼 임시정부가 의열투쟁을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 이끌고 가담하고 뒷받침했던 것이다. 임시정부 경무국 외에도 구국모험단, 주비단, 의용단, 광복군 총영, 광복단 결사대, 참의부, 병인의용대 등이 별인 다각도의 의열투쟁 활동들이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어 갔다.

1920년대 초부터 국내의 여러 지방(대개는 서북지방) 주민들이 임시정부와 연결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의열투쟁 조직들을 결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의열단도 본거지는 중국에 두고 있었지만 국내의 일제기관과 그 요인을 겨냥한 암살파괴 특공거사를 수차 기획하여 시도함으로써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만주의 독립군조직들이 특파하는 결사대적 공작원들도 국내 의열투쟁의 한 흐름을 주도하였다.

그렇게 해서 국내 지역이 초기 의열투쟁의 주된 현장이 되어 갔고, 특히 서북지방과 서울로 집중되었다. 임시정부 소재지이던 상해와 압록강 건너편의 서간도 지방이 책원지가 되는 국내잠입 거사가 빈번히 추동됨에 의해서였다.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는 무장독립운동 단체들이 웅거하고 있던 서간도지방과 인접해 있었기에, 또한 서울은 식민지통치의 중추기관들이 밀집해 있었기에 그리된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안가서 국내거점 비밀결사와 작탄투쟁 전담 조직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그에 힘입어 거점 다변화와 지역기반 강화가 이루어졌다. 국외 지역에서도 동경·상해·북경·천진·안동·하얼빈·장춘 등 일제 침략세력의 소굴, 혹은 침략기지, 혹은 군경기관 밀집지가 되고 있던 여러 도시들로 투쟁공간이 확장되어 갔다.

의열투쟁 전담 조직들의 활동과 더불어 홀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혼자서 실행에 옮기는 개인단독 의거들도 1920년대 내내 속출하였다. 기획특공작전이나 유격계렬라전 형태의 단체조직 의거와 순전한 개인단독 의거는 의열투쟁 흐름 속의 2개의 지류로 병존하면서 상호 보완·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인단독 의거는 그 실행자의 희생을 거의 예외 없이 요하게 되고, 따라서 생명을 바

---

치겠다는 각오 없이는 기도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단체조직 의거보다 훨씬 더 비장한 정황을 수반하고, '의열'의 본원적 의미에도 더 부합하는 행동양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기본양식의 조합에 의해 단체 기획에 집단적 실행, 단체 기획에 개인단독 실행, 개인 기획에 개인단독 실행이라는 세 가지의 거사 유형이 성립하였다. 그 틀 안에서 단독결행 거사, 특종단체 기획거사, 편의대식(便衣隊式) 게릴라전, 주민결사체 활동, 연합제휴 거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공격적 의열거사들이 실행되고 의열정신이 표출되었다. 그러면서도 그 공격은 절제된 범위에서 행해졌으니, 임시정부가 '7가살'로 정리했고 의열단이 '5가살' 및 '5당파(當破)' 범주로 집약시켜 제시한 바의 구체적 표적들에 대해서만 가해진 것이다.

### 3. 의열투쟁의 특성과 가치론적 위상

의열투쟁의 중심적 내용이던 암살과 파괴는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과 명분을 갖고서 시도되고 행해졌다. 무자비한 살육의 도착적(倒着的) 쾌락이나 맹목적 파괴 본능에 이끌린 광신적 행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제국주의 타도와 민족독립 달성이 그 궁극적 목적이었고, 그래서 일제기관 파괴, 일제 요인 암살, 친일파 및 밀정·부일배 처단이 직접적인 행동지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활동들에 의해 식민지 지배의 정치적·군사적 및 산업경제적 기반과 사회심리적 형세에까지 두루 타격을 가하여 봉괴의 계기를 축성함과 동시에, 안으로는 민족성원들의 반제항일 투지와 독립정신을 한껏 고취하고 선양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 본래적 의도였다. 또한 독립운동에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여건인지라,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려는 속뜻도 의열투쟁에는 담겨 있었다.

의열투쟁도 무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무장투쟁이었지만, 독립군의 군사활동('무력투쟁')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전술적 특성이 있었다. 무력투쟁은 비교적 큰 규모의 병력과 장비, 일정한 숙영지 겸 근거지, 조직편제와 지휘체계,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필수조건이었다.

이에 반해 의열투쟁은 순전히 개인적인 결의와 준비로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소집단 규모의 비밀결사나 큰 조직체에 속한 하위 별동조직의 독자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 목표물과 행동방식이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노출될 우려가 큰 근거지의 상비나 조직체계의 완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도 전자와 상이했다.

이런 측면들에 힘입어 의열투쟁은 독립군의 편성과 군사작전의 전개가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

능한 시·공간 독립전쟁 개전의 여건과 기회가 아직 성숙·도래하지 않은 시기 국내, 일본, 중국 관내 등지에서 우선적으로 채택되는 최선·최량의 대체투쟁 방법일 수가 있었다.

그런 특성들을 가진 의열투쟁이 무력투쟁과 전술적으로 배합되면, 정서적 격앙과 적진교란 등에 의한 전과상승의 큰 효과를 올릴 수가 있었다. 소수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 기동성과 집중성을 최대로 발휘하여 수행되는 암살과괴활동은 군사행동 못지않게 위력적인 성과를 낳는 경제적인 투쟁방법이 될 것이었다.

결사적 태세로 고강도의 의열투쟁을 계속해서 벌이면 그 충격·공포 효과에 의해 중국에는 일제가 식민지 경영을 포기하고 말리라는 계산도 일부 작용했다. 의열투쟁에 내재하는 비타협적 투지의 지속적인 발현이 일반 민중을 자주자주 각성·고동시켜 줄 것이라 기대되기도 하였다. 그 점에서는 민중직접혁명 방략과도 관련되면서 항일 민중봉기의 촉발제가 될 선도적 투쟁의 의미를 띠기도 하였다.

안그래도 민중은 의열투쟁 대오에 적극 뛰어들고 있었다. 의열투쟁 참가층을 헤아려보면, 실로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독립군 대원이나 단체조직원을 위시한 전업 독립운동자만 아니라, 농민, 공장노동자, 광부, 점원, 회사원, 우편집배원, 관청 사환, 행상, 일용노동자, 학생, 교사, 향촌 유림, 목사, 승려, 면서기, 전직 군인, 심지어 경찰 간부와 유치장 간수, 무직 실업자까지, 각계각층, 다양한 직업 배경의 인물들이 의열투쟁의 대열로 들어서서 실행자로 참여하였다. 청소년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으며, 남성 독무대가 아니라 여성도 동참하였다.

그들의 참여 동기를 하냥 민족의식의 발로인 것으로만 단순화시켜 말할 수는 없다. 그런 획일적 해석보다는, 개인 차원의 이러저러한 불만이나 절망감, 출구 없는 억압상황과 전망 없는 차별구조가 빚어내는 원초적 반항심과 솟구치는 분노에서 애초의 동기나 결정적 요인을 찾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경우도 꽤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문제의 근원과 본질은 의문의 여지 없이 일본제국주의의 부정의한 '강도정치'와 그 기저의 특권체제로부터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제 경찰당국과 관변·친일 언론은 의열투쟁 속의 투탄·폭파·총격 거사나 그 계획들을 '가공(可憐)할 과격주의적 흥포행위'로만 일률적으로 규정지어버리려 했다. 폭력수단 동원이 가져올 인명 살상이나 시설물 파괴의 결과만을 부각시켜서 처음부터 부정적 현상으로 낙인찍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업에는 마냥 눈감아버리는 칩락자의 일방적 시각일 뿐이었다.

독립운동 진영에서 채택·운용한 전술방략의 하나로서 의열투쟁은 일제 타도와 민족해방 성취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지향된 것이었다. 일본제국주의가 한국민족 성원 대다수의 기본적 생존권조차 위협·박탈하고 심대한 부자유와 억압의 구조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부수고 그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효과적 방책이었다. 의열단의 공약에서 명시되었다시피 정의의 실현이, 역사적 및 국제공법적 정의의 회

---

복이 열렬히 추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개인 또는 소집단 수준의 저항행동이나 대적거사에 살신성의(殺身成義)의 신념과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말하는 것, 이것이 '의열투쟁' 개념의 본 뜻이다. 그럼에도 의열거사들의 부분적 요소인 폭력성만을 부각시키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흉포행위'로 매도하고 '테러리즘'이라고 거칠게 규정해버린다면, 실로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의열거사와 테러가 형태론적으로는 구별이 잘 안될지 모르지만, 성질과 목표에서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테러'란 권력 유지나 탈취 혹은 영향력 행사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와 전율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자행하는 무차별적 폭력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이에 반해 '의열투쟁' 속의 폭력은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정의감이라는 윤리적 가치에 의거하여 특정의 표적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행해지는 자기규제적 행위이다.

이런 차이를 애써 외면하고 의열투쟁과 테러를 매양 동일시해버리는 것은 "여하한 폭력도 무조건 반대"라는 소박한 인도주의 시각에만 매몰되어 제국주의·식민주의·침략주의·인종차별주의와 같은 구조적 폭력과 원천적 불의를 정당화해버리는 것과 같다. 실은 그런 부정의를 고발·응징·교정하여 역사적 정의를 복원·확립하기 위한 싸움으로 한국인들의 의열투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종래의 강권주의 질서에 대한 전면적 반성과 세계사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고차원의 가치지향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행위양식이었다. 일제의 한국침략과 강점·지배가 강권주의 시대의 산물인 역사적 불의의 한 단면이었을진대, 한국인들은 그 불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의의 투쟁을 감연히 벌여간 것이다.

#### 4. 의열투쟁의 역사적 의의

의열투쟁의 주된 내용을 이루었던 대소 거사들의 성패를 하나하나 따진다면, 성공보다는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추진 도중에 그만 중단되어버렸거나, 실행은 되었지만 목표는 성취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공한 거사였지만 파괴력이 미약했거나 실제적 효력이 기대에 못 미친 사례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외견상 실패한 거사였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심리적 효과는 매우 큰 것일 수 있었다. 자기희생 감수의 결연한 태세로 추진되고 감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의 반일정서와 항일 의지가 그때그때 환기·고취되어 일정 수위로 유지되는 효과가 발해지고, 독립운동의 다른 부문들에 대해서는 용약분발의 자극제도 되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의열거사나 의열적 행동들은 소기의 목표 달성 여부나 성

패를 떠나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1920년대의 의열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몇 가지로 꼽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제의 침략-강점-식민통치와 기만적 지배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경고·응징의 선봉장이 되었다.

둘째, 절대독립에 대한 민족적 희원과 그 추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부단히 표출하여 알리고, 민족 내부에 대해서는 일제 타도와 독립 달성의 희망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독립운동 에너지의 견고한 보루요 배후지로 기능했다.

셋째, 적은 비용으로 적을 타격하고 큰 손실을 입힘으로써, 결전기가 아닌 장기대치 국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방법이 되었다. 그래서 일제 관헌은 한국인의 의열투쟁을 몹시 두려워했고,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실토하곤 했다.

넷째, 독립군 무력투쟁을 견인하고 보조하면서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독립운동 역량 축적의 밑거름이 되었다. 일제 식민통치의 기반을 뒤흔들고 그 기생세력에게는 심대한 위협 요소가 됨으로써, 국내의 독립운동 발전의 호조건도 조성해 주었다.

다섯째, 역사적 정의 회복의 의지와 열정, 또한 그것을 체현한 다수의 의·열사들의 언행과 족적은 민족사의 크나큰 굴절과 빼아픈 상흔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을 발하며 한국인의 역사적 기억의 심층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이 잘 전승된다면, 훗날에 응당 있어야 할 민족정기 확립의 중심적 계기가 되어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녔던 1920년대의 의열투쟁 기백은 그 후 10여년의 엄혹한 시간대를 견디어 살아가면서 물러섬 없이 일제와 맞싸웠던 한국인들의 육신과 영혼에 알알이 박혀들어 갔다. 그 결과, 상해-대련-만주-국내-동경 계선을 그려가며 기획 실행된 1932년 한인애국단의 웅대 의거들, 1930년대 재중국 아나키스트들의 다방면 의열거사와 병인의용대의 밀정숙청 활동, 1945년 대한애국청년당의 경성부민관 의거, 그리고 남자현·강병학·조안득 등 용맹지사들의 단독의거들이 1930~40년대의 항일 의열투쟁사를 수 놓게 되었다.<sup>1)</sup> 

---

1) 의열투쟁 전반에 대한 필자의 시각과 상세 논의는, 『의열투쟁 I—1920년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혁명과 의열 - 한국독립운동의 내면 -』(경인문화사, 2010) 참고요망.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약산 김원봉



김삼웅  
「약산 김원봉평전」 저자  
前 독립기념관장

## ▶ 일제 공포의 대상 의열단



▲ 약산 김원봉

한국의 항일 독립운동사에는 약산 김원봉과 의열단의 존재로써 폭렬투쟁의 빛나는 깃발이 꽃히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규식과 김원봉이 주도하는 민족혁명당의 참여로써 좌우합작의 큰 울타리를 치게 되었다.

독립운동사에서 김원봉과 의열단의 존재가 없었다면 얼마나 초라했을까, 임시정부가 해방되는 날까지 한독당 중심의 우파정당 일색이었다면 얼마나 웅색했을까를 생각할 때 김원봉의 존재는 더욱 빛난다.

남한(한국)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망명하여 일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해방과 함께 귀환하여 통일정부 수립에 헌신하다가 쫓겨 북한으로 넘어가 김일성에게 숙청당한 비운의 사나이. 그의 생애는 20세기 전반기 동북아 질서의 축소판이고, 그의 운명은 같은 시기 한반도의 분단사와 친일잔재와 적색 독재가 남긴 트라우마이다.

독립운동과정에서 무수한 지사들이 신명을 바쳐 일제와 싸우다가 희생되어 민족사에 큰 별이 되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민족은 해방되고 당당한 독립국

가로서 20세기 중반에 세계사의 일원이 되었다. 독립운동의 성과 중에서 김원봉이 차지한 별자리는 남다르다.

김원봉은 무장독립운동의 산실인 신흥무관학교를 나와 의열단을 조직,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의열투쟁을 벌이고 남경에서 황포군관학교를 나와 중국 국민정부군사위원회 간부들의 지원으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열고 독립운동 간부들을 육성하였다.

김규식 등과 민족혁명당을 창당한데 이어 임시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좌우합작 정부를 출범시켰다.

한국독립운동사에 고딕체로 기록되는 1919년 11월 9일 만주 길림성 파호문(樑虎門)밖 중국인 농민 반(潘)씨 집에 조선청년 10여 명이 모였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정의'의 의(義)자와 '맹렬'의 열(烈)자를 따서 '의열단'이란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김원봉을 단장(의백)으로 하는 13명의 청년들은 형제의 의를 맺고 '공약 10조'로서 조직의 기율을 정했다.

- ① 천하의 정의의 사(事)로서 맹렬히 실행키로 함.
- ②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키로 함.
- ③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됨.
- ④ 단의(團義)에 선(先)하고 단원의 의(義)에 급히 함.
- ⑤ 의백 1인을 선출하여 단원을 대표케 함.
- ⑥ 하시하지(何時何地) 어느 시 어느 때에서나 매일 일차씩 사정을 보고함.
- ⑦ 하시하지에서나 초회(初會)에 필응(必應)함.
- ⑧ 피사(被死)치 아니하여 단의에 진(盡)함.
- ⑨ 일(-)이 구(九)를 위하여, 구(九)가 일(-)을 위하여 헌신함.
- ⑩ 단의에 반배한 자를 처살함.

의열단은 3.1운동이 좌절되면서 폭렬투쟁을 통해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결의로 창립되었다.

김원봉을 비롯하여 창립멤버 13명 대부분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었다. 의열단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마땅히 죽어야 할' 대상 곧 '7가살(七可殺)'을 적시했다.

- ① 조선총독 이하 고관
- ② 군부수뇌
- ③ 대만총독
- ④ 매국적
- ⑤ 친일파 거두
- ⑥ 적의 밀정
- ⑦ 반민족적 토호열신(악덕지방유지)

의열단은 '7가살'에 이어 마땅히 '파괴대상' 다섯 기관을 선정했다.

- ① 조선총독부
- ② 동양척식회사
- ③ 매일신보사
- ④ 각 경찰서
- ⑤ 기타 외적 주요 기관

김원봉은 단원들에게 힘주어 말했다.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쟁취하는 것이 지 결코 남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선민중은 능히 적과 싸워 이길 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구자가 되어 민중을 각성시켜야 한다.”

일제 군경과 관리·밀정들은 의열단이 나타났다는 소문만 들어도 놀라 오줌을 지렸다. 실제로 충청도 어디에서는 경찰이 좀도둑을 잡아 경찰서에 얹혀봤더니 이 사람이 “나 의열단이다” 하자 순경들이 놀라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다.

의열단의 폭렬투쟁은 3.1운동 이후 침체된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선청년들의 의기에 불을 붙였다. 수많은 청년들이 의열단에 속속 가입했다.〈아리랑〉의 작가 님 웨일즈는 의열단원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멋진 친구들이었다. 의열단원들은 언제나 멋진 스포츠형의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잘 손질했다. 이런 경우에도 결백할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차려 입었다.”

의열단의 폭렬투쟁이 일반 테러사건과 다른 것은 신채호가 〈의열단선언〉, 〈조선혁명선언〉을 통해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토를 없이하여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에 대한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라고 주장, 일제를 조선의 국호와 정권과 민중의 생존을 박탈해간 강도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이 정당한 수단임을 천명하였다. 의열단원들은 의거 당시 〈의열단선언〉과 〈조선총독부 관

공리에계》라는 문서를 함께 살포하였다.

“조선총독부 소속 관리제군, 강도 일본의 총독부 정치하에 기생하는 관공리 제군, 제군은 제군의 선조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움직일 수 없는 한국민족의 일분자가 아닌가. 만약 한국 민족의 일분자라고 하면 설령 구복(口腹)과 처자를 위해 강도 일본에 노예적 관공리 생애를 한다고 할지라도 강도 일본의 총독정치가 아민족의 구적(仇敵)임을 알지라. 따라서 아(我)들의 혁명운동은 곧 강도 일본의 총독정치를 파괴하고, 한국 민족을 구제하려고 하는 운동임을 알지라. 이를 안다면 우리의 혁명운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그런데도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도배의 생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의열단은 조선민중의 자존심이었다. 국권회복의 방략으로 외교론·실력양성론 등이 제시되었지만 ‘강도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을 전취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올린 것이 바로 의열투쟁이었다.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인물과 기관을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 중심에 김원봉이 있었다. 일제에서 김원봉과 의열단의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일본 외무대신은 “김원봉을 체포하면 즉시 나가사키(長岐) 형무소로 이송할 것이며, 소요경비는 외무성에서 직접 지출할 것”이라는 요지의 훈령을 상해 총영사관에 하달하면서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 ▶ 임시정부 참여 좌우합작 정부수립

일제강점기 김원봉의 행적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오직 목표를 조국 독립에 두고 활동하였다. 중국 국민정부와 제휴하여 혁명간부학교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대일전선통일동맹결성, 1935년 남경에서 조선민족혁명당 결성에 참여하여 중앙집행위원 겸 서기부장에 취임한 것 등은 정세의 변화에 따른 정치투쟁으로의 노선변경이었다.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면서 독립운동 진영은 본격적인 중일전쟁을 내다보면서 일제 패망에 대비하였다. 민족혁명당은 1943년 2월 제7차 대표자대회에서 임시정부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것은 임시정부가 명실상부한 좌우세력의 통합기구로서 한국독립운동의 중심기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민족혁명당의 김규식과 김원봉 등 수뇌부는 일제 패망이 머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고 독립운동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임시정부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1943년 4월 임시정부는 국무위원 수를 14명으로 증원하면서 통일전선 내각을 구성하였다. 통일전선 내각은 한국독립당의 김구 주석, 민족혁명당의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하고 한국독립당의 이시영·조성환·황학수·조완구·차리석·박찬익·안훈·조소앙,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장건상·김봉준·성주식, 조선혁명자연맹의 유림,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성숙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좌우, 중도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거국내각 또는 전시내각이었다. 김원봉은 중경에 있는 민족운동단체가 모두 의정원에 참여하데 대해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우리들이 평소에 공동히 노력하는 관내 혁명운동의 통일은 금차 한국 임시의정원 제134회 회의로 인하여 형성되었다. 전세계 민주전선의 승리가 점차 가까워오는 이때에 오랫동안 분열 고립하여 오던 우리의 각 혁명단체 및 각 개인들이 모두 한 방에 모여앉아 일찍이 보지 못하던 대단결을 형성하는 동시에 화중공제하는 정신으로 우리 민족의 혁명단체를 토의 결정하게 된 것은 심히 중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차 회의를 계기로 하여 우리 관내 혁명운동은 한 역사적 발전을 기망할 수 있으며 또 따라서 우리의 민족적 지위와 임시정부의 권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중경의 가릉빈관에서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군했다. 김원봉은 1942년 5월 18일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광복군에 편입하여 제1지대로 개편되고, 광복군부사령 겸 제1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에 부사령관직의 증설을 결의하고 조선의용대 대장 김원봉을 부사령관으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조선의용대장 김원봉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두 사람은 개인의 의견으로서 뿐 아니라, 용감히 분투하고 있는 다수 동지의 일치된 의견 위에 해외에 있는 다수 동지·동포와 함께 먼저 관내운동조직의 계획적 변혁과 광명을 가진 새로운 국면의 창조를 향하여 절대적인 자신과 용기를 갖고 나아가려 한다.” 김구와 김원봉의 합작은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의 합작이고,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의 합작이었다.

이것은 바로 독립운동 좌우 진영의 통합을 상징한다. 일제패망 뒤 임시정부 요인 환국 제1진에는 김구와 김원봉이 나란히 포함되었다.

미국은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인하고 요인들을 개인자격으로 귀국토록 하여 해

방정국에서 임시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가정이지만 환국한 임시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면, 좌우 세력의 연합체로서 통일국가를 세울 수 있는 모체가 되었을 것이다.

김원봉은 해방정국에서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다. 1946년 9월 21일 영남항쟁 조사단장으로 활동 중에 서울성북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947년 3월 하순에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미군정경찰에 피검되는데 이어 8월에는 가택이 피습 당했다. 1947년 3월에는 친일파 장승원의 아들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의 지시로 총독부 악질 경찰 출신인 노덕술에 체포되어 중부경찰서에 유치되었다.

김원봉은 이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풀려나와서 3일 동안 통한의 눈물을 뿌렸다. “내가 조국 해방을 위해 중국서 일본놈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친일파 경찰 손에 수갑을 차다니, 이럴수가 있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1948년 4월 9일 김원봉은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남쪽에서는 김구·김규식·조소앙·조완구 등이, 북한에서는 김일성·김두봉 등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석회의는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입북했던 김구 등은 내려왔으나 김원봉은 평양에 눌러 앉았다. 북한 체류와 관련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남한에서 테러 위협과 신변 불안, 단독선거로 남한에서 정치적 활동공간 확보의 어려움, 미군정 경찰의 체포령, 북한에서 활동중인 예전 동지 연안파들의 만류 등이다. 김원봉은 북한에서 국가검열상과 노동상,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1958년 11월 그의 이름은 북한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숙청설 등 갖가지 소문이 따르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

김원봉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혁명가의 생애가 그렇듯이 김원봉은 특히 그랬다. 그의 가족도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9남 2녀의 형제중 친동생 4명과 사촌동생 5명이 보도연맹사건으로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는 굶어죽었다.

조국(남북)은 그에게 많은 빛을 줬다. 남북에서 억울함과 한을 품고 사라져간 그에게 겨레는 빛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 해방직후 김오성은<지도자 군상>에서 김원봉을 다음과 같이 그렸다. “기미년 이후 친일파, 지주, 자본가, 관공리, 일본제국 주의자들에게 최대 공겁(公愾)의 표적이었으며, 필자와 같은 20세 안팎의 젊은이들에게는 민족해방의 상징적 존재였다.” ㉞

# 독립운동의 방법론

## - 외교론과 무장투쟁론



장 세 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머리말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멸망 이래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 세력의 패망시까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과 이념에 입각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실제로 독립전쟁론(무장투쟁론), 외교론, 실력양성론 등 독립운동의 방략과 민족주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아나키즘 등 독립운동의 이념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결산해보면 결국 가장 큰 효과를 거두었고, 가장 큰 호소력을 가졌던 독립운동 방법론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신명을 다바쳐서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고자 하였던 무장투쟁 방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만주(중국동북) 지역의 독립군과 항일유격대,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 등 무장세력의 활동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1920년대 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李承晩)의 외교론과 이동휘(李東輝)의 독립전쟁론, 안

창호(安昌浩)의 실력양성론(또는 준비론) 등 독립운동 방법론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독립운동의 방법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무장투쟁론과 이승만의 외교독립론 또는 외교우선론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sup>1)</sup>

## 2. 신민회의 독립전쟁론 수립과 독립군기지 개척운동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서·북간도 지방을 항일 부흥운동의 기지로 삼아 국권 회복운동을 전개하려는 계획은 1895년경 김형진(金亨鎭)·김창수(金昌洙 : 김구) 등이 구상하고 현지를 답사한 데서 출발하였다.<sup>2)</sup> 그 뒤 이러한 계획은 유인석 의병진영에 전달되었다.<sup>3)</sup> 1896년 1월 ‘호좌의진(湖左義陣)’을 일으킨 유인석은 한때 기세를 올렸으나, 관군에 패한 뒤 평안도를 거쳐 1896년 8월 말 중국 봉천성 회인현(懷仁縣)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유인석 등은 서간도에서 연해주로 이동하여 1910년 6월 ‘13도의군’을 조직하는 등 국권회복운동을 지속하였다. 또 1900년대 초 북한 지역에서 의병항전을 주도했던 이진룡(李鎭龍)·조맹선·박장호·백삼규(白三圭)·전덕원(全德元)·범도·채응언(蔡應彦) 등도 서간도와 북간도 지방으로 망명하여 재기를 도모하였다. 이처럼 서북간도 지

역이 독립운동 기지로 중요시된 것은 우리나라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및 과거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와 연고지라는 인식, 또한 상당수의 한인들이 이미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봉오동 청산리 전투 요도

국의 독립운동 기지로 가장 먼저 주목된 곳은 북간도 지역이었다. 1905년 을사5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의 멸망을 예견한 이상설·이동녕·이회영·정순만·여준 등의 민족운동가들은 1906년 4월경부터 북간도의 중심지인 연길 현 용정촌을 독립운동 기지의 대상지로 삼고 경영에 착수

① 이승만(李承晩 : 1875~1965)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로 유명하다. 호는 우남(雲南). 황해도 평산 출생. 1895년 배재학당을 졸업할 무렵 개화사상에 심취, 협성회·독립협회등에서 활동하였다. 1898년 정부전복계획 혐의로 투옥되어 1904년 석방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정부에 일본의 한국침략 저지를 호소했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자 귀국하여 기독교청년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피체, 1913년 하와이로 건너가 한인교육사업에 투신하였고, 1919년 3·1운동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주로 미국에서 외교노선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1945년 광복이 되자 귀국,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60년 4선되었으나 4.19혁명으로 사임, 하와이로 망명하여 1965년 별세하였다.

② 김구(道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68-75쪽.

③ 조동걸, 「전통명가의 근대적 변용과 독립운동 사례 - 안동 천전문종의 경우」, 『대동문화연구』3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0, 407쪽.

하였다. 이들은 그 해 가을 용정촌에 민족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일제의 탄압과 재정적 곤란 등 어려움으로 1년만에 폐교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명동촌(明東村)이 독립운동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08년 4월 김약연(金躍淵) 등이 명동촌에 명동학교(明東學校)를 세웠다.

또한 이 시기에 창동학원(昌東學院)·광성학교(光成學校)·정동학교(正東學校)·북일학교(北一學校) 등 많은 학교가 세워져 민족교육을 실시하며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1920~1930년대 민족운동의 주요 인재로 성장하였다. 한편 신민회는 1907년 4월 안창호의 발기에 의해 양기탁(梁起鐸)·전덕기(全德基)·이



▲ 청산리대첩기념비

동휘(李東輝)·이동녕·이갑(李甲)·유동열(柳東說)·안창호 등 7인이 창건위원이 되고, 노백린(盧伯麟)·이승훈(李昇薰)·안태국(安泰國)·이시영(李始榮)·이회영·이상재(李商在)·윤치호(尹致昊)·이강(李剛)·조성환(曹成煥)·김구·신채호(申采浩)·이종호(李鍾浩)·주진수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신민회는 공화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비밀조직이었는데, 교육구국운동, 계몽강연·학회운동, 출판운동, 민족산업 진흥운동, 청년운동 등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sup>4)</sup>

특히 신민회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을 감행한 직후인 1907년 8월 해외의 독립군 기지 개척과 독립군 창건 문제를 최초로 검토하였다. 이후 신민회가 이같은 방침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시기는 의병운동이 퇴조기에 접어든 1909년 봄이었다. 이때 신민회는 양기탁의 집에서 전국 간부회의를 열고 국외에 적당한 후보지를 골라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기지를 창건하여 강력한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천되기 전인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

④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한국민족 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17-24쪽.

미를 사살하는 의거가 일어났다. 이에 일제는 안창호·이동휘·유동열·이종호·김희선(金羲善) 등 다수의 신민회 간부들을 구속하였다가 이듬해 2월에야 석방하였다. 이에 신민회는 1910년 3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독립전쟁 전략'을 채택하고,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독립전쟁론'은 한말의 구국계몽운동 및 항일 의병전쟁의 이념과 논리가 합일적으로 발전한 새로운 논리였다.

일본 침략세력으로부터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달성키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은 적당한 때에 일제와 독립전쟁을 결행하는 것이라는 독립운동의 이론체계였다. 독립전쟁론의 첫 실천방안이 바로 국외에 독립군 기지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집단적 이주도 구상되었다.<sup>5)</sup>

신민회의 이러한 구상에 따라 1910년 4월 안창호·이갑·유동열·신채호·김희선·이종호·김지간(金志侃) 등이 출국했으며, 가을에는 이동녕·주진수 등도 만주 일대를 비밀리에 답사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또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선발대인 이동녕·이회영 등은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한 단체이주를 추진했는데, 봉천성 유하현 삼원보에서 기지개척 사업에 착수하였다.

신민회는 1911년 봄에 대대적인 단체이주를 실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총독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191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걸쳐 황해도 '안악사건(일명 안명근 사건)'과 '양기탁 등 보안법 위반사건', 같은 해 9월에 '데라우치(寺內正毅) 조선총독 암살음모사건'(일명 신민회사건, 또는 105인 사건)을 일으켜 안창호·이동휘·이갑·유동열·이종호를 비롯한 신민회원 등 600여 명을 대거 체포하였다.

이에 신민회는 큰 타격을 받고 조직이 거의 와해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민회 계열 인사들은 1911년 봄 삼원보에 자치조직인 경학사(耕學社)와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4월(혹은 6월)에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이곳에서 이시영·이석영·이회영 일가와 이동녕·양기탁·이상룡·허위·김대락 일가 등이 가산을 정리하고 집단으로 이주하여 한인 마을과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였다. 신흥강습소는 뒤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학교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1920~30년대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졌다.<sup>6)</sup>

---

⑤ 신용하, 위의 논문, 100~106쪽.

⑥ 신용하, 위의 논문, 100~119쪽.

한편 1910년 7월 중국 청도(靑島)에 모인 신민회의 주요 인사들은 이른바 ‘청도회의’를 열고 기지개척과 독립운동 방침을 논의하였다. 이때 회의에 참석한 안창호·이갑 등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여러 지사들과 독립군 기지개척을 논의하였다. 연해주의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은 1909년 블라디보스톡에 간 이상설과 한민회장 김학만(金學萬), 「海潮新聞」 주간 정순만(鄭淳萬), 영남 출신의 유학자 이승희(李承熙) 등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지건설의 후보지로 중국 밀산부(密山府) 봉밀산(蜂蜜山) 부근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창호는 미주 공립협회(共立協會) 및 신민회원들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후원하였다. 이승희는 1909년 가을 이주민을 이끌고 봉밀산 밑에 터전을 잡고 북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는 처음 100여 가구를 이주시키면서 그곳을 ‘한흥동(韓興洞)’이라고 명명했다.

미주의 대한민국민회가 1910년 3월 자금을 모아 설립한 ‘태동 실업주식회사’는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톡에 세운 ‘원동임야주식회사’에 자금을 보내 토지를 구입케 하였다. 이에 따라 1911년 7월 토지등기를 마쳤다. 그 뒤 정재관(鄭在寬)·이강(李剛)·김성무(金成武) 등이 봉밀산 개척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봉밀산에는 약 500호 가량의 한인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봉밀산 개척사업은 자금부족과 흉년, 이주 한인들의 부적응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봉밀산 개척지는 이후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특히 흥범도는 1916년 빈민 300여 호를 이곳에 이주시키고 한흥동에 소학교를 세워 한인 자제들의 교육과 독립군 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밖에 이동회는 연해주에서 조직된 권업회의 후원을 받아 1914년 북간도 왕청현 나자구(羅子溝)에 대전학교(大甸學校 : 일명 동림무관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권업회의 주요 임원인 이종호가 자본금 천원을 각출하고 이동회와 지역 유지인 최정국·염재균·전의근 등이 중국과 협의하여 세웠다. 이 학교는 군사교육과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항의로 인해 1916년 폐교되었으나, 이후 북일학교와 북로군정서 산하의 사관연성소 등으로 그 맥을 계승하여 1920년대 초의 독립전쟁에 크게 기여하였다.<sup>7)</sup> 또 신민회 시절 안창호와 함께 이상촌 건설운동을 추진하였던 김필순(金弼淳)은 1911년 통화로 망명하여 서간도 개척에 참여하였다. 그는 세브란스 의전 동기인 이태준(李泰俊)과 함께 몽고에서 의료사업을 하면서 북만주 치치하얼(齊齊哈爾)에 수십만 평의 토지를 매입하

---

⑦ 신용하, 위의 논문, 119-121쪽.

고 100여 호의 한인들을 이주시키기도 했다.

1911년 5월 결성된 권업회 역시 군자금 비축활동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톡과 북간도의 혼춘에 각각 ‘양군호(養軍號)’와 ‘해도호(海島號)’라는 잡화점을 운영하였다.<sup>8)</sup>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1915년 7월부터 1917년 11월까지 밀산의 김성무 농장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홍범도가 북간도 지방으로 진출하여 ‘대한독립군’을 결성하는 등 1920년대 초의 무장투쟁으로 결실을 맺었다.<sup>9)</sup> 이처럼 1910년대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1920년대 봉오동·청산리전투 등의 독립전쟁, 나아가 1920~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일본 육사 출신으로 신홍강습소의 교관으로 활동했던 김경천(金擎天, 본명 金光瑞)은 후일 쓴 일기형식의 회고록 「경천아일록(擎天兒日錄)」에서 이 학교 학생과 졸업생, 관계자들이 3.1운동 이후 크게 고무되어 “무기를 준비해 압록강을 넘는 것이 소원” 이라고 할 정도로 독립전쟁에 열의를 보였던 것으로 기록하였다.<sup>10)</sup> 그만큼 이 학교는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항일무장투쟁의 기간 인재를 배출하는 요람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항일무장투쟁은 이러한 군사인재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였다.

### 3.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략과 이승만의 외교독립론

1919년 4월 성립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그해 9월 15일 3.1운동 직후 서울에서 성립한 漢城政府和 블라디보스톡에 성립한 대한국민의회 등 다른 조직을 개헌형식으로 통합하여<sup>11)</sup> 나름대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방분파의 대립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한인들의 기반이 별로 없는 상해지역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외 독립운동을 총괄한다는 애초의 목표를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1919년 11월 독립전쟁론자로 평가되는 이동휘(李東輝)가 상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하고, 또한 1919년 후반과 이듬해 초까지 진행된 ‘일본의 시베리아 간섭출병’으로 연해주 및 시베리아 지역의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야기된 러시아 혁명군(赤衛軍)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은 기존의 미·일 전쟁설과 함께 아(俄-러시아)·일(日) 전쟁설을 제기하여 임시정부 요인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에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들 국가 사이의

⑧ 윤병석, 「1910년대 연해주지방에서의 한국독립운동」, 「국외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208쪽.

⑨ 장세윤, 「홍범도 - 생애와 독립전쟁」, 독립기념관, 1997, 143-154쪽.

⑩ 「김경천 친필 ‘경천아일록’ 공개」, 『경향신문』, 2005년 9월 6일자.

⑪ 尹大遠, 「大韓民國臨時政府의 組織·運營과 獨立方略의 분화(1919~193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98쪽.

대립적 정세를 이용하여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호기가 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이러한 시기야말로 한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인식하고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sup>12)</sup>

더욱이 1919년 말 이동휘 내각이 성립하고 서간도 및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이듬해 초기 임시정부는 그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임시정부는 이러한 내적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1920년 초 독립전쟁을 시정방침으로 선포했고, 이후 한동안 국내외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sup>13)</sup>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 결과 임시정부 안에서 이동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친소(親蘇) 외교노선과 무장투쟁론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20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동휘는 임시의정원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 양세봉 석상

② 윤대원, 위의 논문, 140쪽.

③ 윤대원, 위의 논문, 136쪽.

독립전쟁의 후원과 한국독립의 정당성에 대한 대외선전을 외교의 주제로 확고히 천명하였다.

이동회가 행한 위의 연설 가운데 외교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외교의 주지(主旨)를 독립전쟁의 후원을 득(得)함에 치(置)해야 그 방침으로의 대외선전의 주지를 삼(三)에 분(分)하여 한국의 독립이 동양 급(及) 세계의 평화에 필요함과, 일본의 통치하에서는 한족(韓族)은 도저히 생존번영을 향락치 못할 것과, 한족(韓族)에게 독립국민이 될 자격이 있음을 선전하여 세계로 하여금 한국의 독립전쟁을 원조케 하도록 한다함 등……”<sup>14)</sup>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는 파리강화회의 등에 기대하는 것과 같이 열강의 동정과 승인을 획득하는데 주력했던 성립 직후의 외교에서 벗어나 독립전쟁을 후원하기 위한 실질적 군사외교로 그 방침을 크게 전환하게 되었다.

1919년 11월 말 국무총리 이동회는 미국에 체류중이던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내 시국관을 피력하며 이승만에게 임시정부의 대정(大政)방침과 ‘혈전(血戰) 등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문의하였다.<sup>15)</sup>

1920년 ‘독립전쟁의 원년’ 선포와 관련하여 임시정부에서 노력을 집중한 외교 대상국은 중국과 미국, 소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임시정부가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외교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창기 중국과 임시정부의 관계는 그리 원활치 못하였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중국 자체의 분열에 따른 복잡한 내부사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임시정부 자신이 초기 외교를 파리강화회의와 미국에 집중시킨 원인도 컸다.<sup>16)</sup>

이승만은 1920년 12월 5일 임병직(林炳稷)과 함께 미국 하와이에서 상해(上海)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각료와 직원들을 접견한 것은 12월 13일이었다.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같은 달 28일, 상해교민단(上海僑民團)이 베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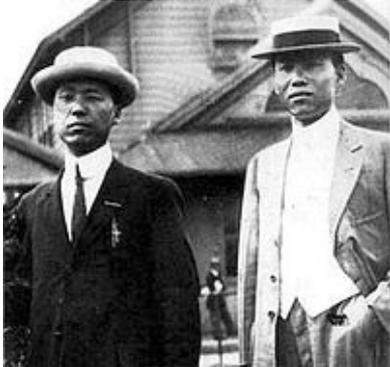
---

⑭ 「이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독립신문》1920년 3월 6일자.

⑮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그 다음에 이를 말씀은 우리 정부는 확립한 대정방침(大政方針)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요사이 대정 방침 안으로 내각 회의를 비롯하여 토의 중인 바 물론 결재되는 대로 각하에게 고하려니와 각하여 각하는 우리 독립이 국제연맹에 대한 요구에 있다 하시나이까, 아니면 최후의 철혈주의(鐵血主義)로 해결되리라 하시나이까. 현명하신 각하여 우리 만대 자손 계획 을 위하시어 물론 고견이 계시겠지요마는 나는 아직도 세상이 야심판이요, 더군다나 왜노(倭奴 : 일본)의 독종이 그리 고맙게 양심대로 우리 독립을 순하게 승인하리라 믿지 아니하므로 어느 때든 지 우리는 최후의 일인(一人)이 죽기까지 견고하고 확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독립할 날이 있을까 하나이다. 만일 제 의견이 가하시다 하오면 이에 대한 시기·위치·준비는 어떠하여야 되리이까. 또한 분명한 교시를 필요로 하나이다(말줄은 필자). - 대한민국 원년(1919년 - 필자) 11월 29일 제(弟) 이동 회 배계

⑯ 윤대원, 위의 논문, 141쪽.



▲ 1913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 기차역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한 이승만(왼쪽)과 박용만. 한 때 결의형제를 할 만큼 일생의 동지였던 두 사람은 독립운동 방법론과 국민회기금을 둘러싸고 대립하여 결국 정적이 되고 말았다.

환영회 자리에서였다. 그는 1921년 1월 1일 신년축하식을 계기로 임시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sup>17)</sup> 이 때 상해 교민들과 독립운동가들은 큰 기대를 걸고 이승만을 적극 환영하였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환영회를 열어 그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 환영회에는 이동휘 국무총리와 안창호 노동국 총판 등 다수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불과 5개월만에 상해를 떠난 뒤 중국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미국에서 활약하던 임시대통령이 독립운동의 대정략(大政略)과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갖고 올 것으로 기대했던 상해의 교민들과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에게서 그러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당히 실망하게 되었다. 특히 3.1운동 발발 전후에 미국의 윌슨대통령에게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하

에 둘 것을 청원하였던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이승만은 시종 수동적 자세로 이러한 정국을 수습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더구나 이동휘(李東輝)·안창호(安昌浩)·김구식(金奎植)·남형우(南亨祐) 등 거물급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는 등 결국 임시정부를 이탈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신규식(申圭植)·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노백린(盧伯麟)·손정도(孫貞道) 등으로 새 국무원을 구성하여 간신히 위기국면을 넘겼다. 그러나 결국 1921년 5월 17일 이승만은 '외교상 긴급과 재정상 절박'을 이유로 부득이 상해를 떠난다는 고별교서를 임시의정원에 남기고 잠적하고 말았다. 그는 중국 남방의 소주(蘇州) 등을 거쳐 5월 29일 상해를 떠나 한달만인 6월 29일에 다시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였던 것이다.<sup>18)</sup>

이승만 외교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구미 열강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 즉 승인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열강의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한국이 독립으로 나아가는 전단계로 인식하였다.<sup>19)</sup>

①7 유명익,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1996, 154쪽.

①8 위의 책, 156쪽.

①9 고정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현대한국학연구소 제6차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04, 12쪽.

이승만은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팽창이 중국 및 소련과의 전쟁으로 연결되고 최후에는 서구 열강, 특히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정세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미국의 지원을 얻을 때에만 한국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미국인의 ‘인심’을 고동시켜 결정적인 시기에 대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sup>20)</sup>

이승만은 1919년 8월 말 구미위원부를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미주와 유럽에서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외교와 재정 업무 등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구미위원부의 존재가 임시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고 반발하였다.

특히 임시정부는 구미위원부가 미주 교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자금을 독점하지나 않을까 우려했다.<sup>21)</sup>

특히 해내의 각지 민족운동 세력들에게 19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렸던 미국 워싱턴회의의 종결은 이승만이 주장해 온 친미외교노선의 파탄으로 받아들여졌다.<sup>22)</sup>

결국 임시정부는 우여곡절을 거쳐 1925년 3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 면직 처분을 내리고 동시에 구미위원부도 폐지하는 비상조치를 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20년대 초 이승만의 외교노선은 무장투쟁론이나 실력양성론과 같은 독립운동의 방법론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독립 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바탕을 둔 국가를 세운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무장투쟁론 같은 경우에도 1930년대가 되면 독립 후에 수립할 근대민족국가 건설론을 개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한 무장투쟁 세력, 예를 들면 민족주의 계열인 조선혁명당 세력은 독립 후에 세울 근대민족국가의 모델로 ‘민주공화국’을 지향하였지만,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를 구상했다기 보다는 토지의 국유화와 대규모 생산기관과 독점적 기업의 국영, 국민 경제활동의 국가통제와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이승만의 외교노선이 추구했던 국가의 이상적 모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외교노선과 무장투쟁론은 단순한 독립운동의 노선 차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차 독립 후에 우리 민족이 세울 근대적 민족국가의 이상적 모습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

---

⑩ 고정휴, 위의 논문, 13쪽.

⑪ 고정휴, 위의 논문, 13쪽.

⑫ 고정휴, 위의 논문, 13쪽.

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각종 선언이나 문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성원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192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창기에 외교를 독립운동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구미(歐美) 열강(列強)에 의존하여 일본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독립을 추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중국공산당은 독립국가의 창설과 혁명정부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자국민의 자력(自力)으로, 참으로 어려운 싸움을 거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이들은 “일부 조선 민당(民黨)과 같이 스스로 혁명에 노력하지 않고 파리회의나 워싱턴회의에 호소하여 외국의 승인이라는 도움을 좇으면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 군벌(軍閥)과 열강이 결탁하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독립 자주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sup>23)</sup>

#### 4.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무장투쟁론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경우에 따라 ‘임정’)는 독립운동의 방법으로서 외교 · 교육 · 문화활동과 함께 군사활동을 중시하여, 독립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제도를 마련하였다. 임시헌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통수권을 가졌으며, 군사편제는大本營(大本營) · 참모부(參謀部) · 군사참의회(軍事參議會) · 군무부(軍務部)로 이루어졌다.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大韓民國臨時政府陸軍駐滿參議府) 등이 임시정부 직속의 군사기관임을 내세웠지만, 독자적인 독립군부대를 가지지 못한 임정의 초기 군사활동은 선언적 단계에 한정되었다. 만주 · 노령지역의 독립군과 유리된 상황은 임시정부의 효율적인 군사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조건은 임시정부의 위상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동하고 있던 김구는 그의 회고록 『백범일지』에서 “외교로 말하면 임시정부 원년(1919) 이후 국제외교에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중 · 소 · 미 등 정부 당국자들의 비

---

②③ 中共 中央 「時局에 대한 주장(1923년 7월)」, 『中國共產黨史資料集』1, 日本國際問題研究所 中國部會 編, 東京: 勁草書房, 1975, 278쪽.

공식적인 원조가 가끔 있었을 뿐 공식적인 응원은 없었다. 오늘에 이르러(1942~43년경 - 필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羅斯福)가 '장래 한국이 완전 독립 하여야겠다'고 전세계를 향하여 공식으로 널리 알렸고, 중국의 입법원장 손과(孫科) 씨는 공식석상에서 '일본제국주의를 박멸하는 중국의 양책(良策)이 제일 먼저 한국 임시정부 승인에 있다'고 강조하였다."<sup>24)</sup>라고 회고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이 시기 한국의 신탁통치안을 구상하고 있었고, 중국은 끝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만큼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이 해방 당시 한국광복군 등이 미국의 OSS(전략정보국)와 합작하여 '독수리작전'을 세우고, 국내 정진(挺進)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었으나, 일본의 '조기항복'으로 대일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사실을 매우 아쉬워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항일무장투쟁은 우리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순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다. 특히 해방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등은 열강으로부터 교전단체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구가 『백범일지』에서 "왜적이 항복한답니다."고 하였다.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西安)훈련소와 부양(阜陽)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케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기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sup>25)</sup>라고 한 것은 결국 무장투쟁의 성과를 올려 열강으로부터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인정받겠다는 목표에 큰 차질이 빚어졌음을 암시한다. 그만큼 우리의 힘에 의한 무장투쟁은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

②4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297쪽.

②5 김구, 위의 책, 399쪽.

## 5. 맺음말

결국 모든 독립운동 방법론 가운데 무장투쟁 노선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도 가장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무장투쟁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많은 난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항일무장투쟁은 주류였고 구한말의 의병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주체는 지방의 유생에서 점차 민중까지 확산되었다.

1920년대 이후 독립운동 과정에서 매우 주목되는 무장투쟁은 중국 동북지역(만주), 특히 북간도(현재의 연변) 지역에서의 독립군의 무장항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관내(關內)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외교노선에 치우친데 반해, 러시아(露領) 연해주나 시베리아, 만주(서간도·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단체들은 독립전쟁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다. 1920년대의 남만주와 북간도 일대의 독립군과 1930년대 독립군, 항일유격대의 한·만(滿) 국경일대의 수많은 기습전투와 유격전은 일제의 식민지 '조선' 통치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1933년 말부터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간부와 사병들이 대거 중국 관내지방으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획한 한국광복군에 참가하였다(1940년). 이는 항일무장투쟁의 계승과 발전이었고, 해방 직전 한민족의 역량을 크게 높이는 것이었다.

70여년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한다. 외세의 간섭과 침략으로부터 우리 민족과 국가, 역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자주적인 우리의 역량이며, 그것은 단결과 통일정신으로 밀반침된다는 평범한 사실이 새삼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한다.

# 무명의 新興용사를 추모하며



정 광 형  
연세대학교 법학과 4학년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 I. 그려왔던 꿈

수험 생활을 하는 도중, 우선 지금 앞에 주어진 일들에 대한 결론을 낸 후에는 꼭 중국 내 항일유적지를 답사해보겠다고 다짐했었다. 비록 전공은 아니었지만, 역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항일운동에 관해서 알아볼 때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내놓으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곤 했었기에, 잠깐의 여유라도 내게 주어진다면 꼭 한번 실행해보고자 했던 일이다.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좁디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는 스스로 계획을 짜보고 머리 속에는 중고 오토바이를 한 대 장만하여 체 게바라가 그려하였던 것처럼 중국 내 항일유적지를 모터사이클로 횡단하는 모습을 그려봤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군대 영장을 받아들고는 수험생활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내 원대한 계획들도 한낱 꿈처럼 기억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혼자서 서대문형무소와 백범 김구 기념관을 다녀온 뒤 훈련소로 떠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복학을 하게 되었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모집광고를 보게 되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며 성심성의껏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쁘게도 답사단원이 될 기회가 주어졌다. 2011년 올해는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평소 진심으로 존경하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영혼이 아마도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 II. 그 곳에 발을 딛고

부풀어 오르는 기대 속에 밤잠을 계속 설치게 되었고, 눈을 붙였다가는 못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새고 공항으로 달려갔다.

수속을 밟은 후 가슴 속에는 설렘을 싣고 중국행 비행기에는 몸을 싣고 창밖의 몽롱한 구름을 잠시 봤을 뿐인데, 나는 어느덧 대련땅에 서있었다.

대련은 독립운동사의 영웅 세 분을 잃은 곳이다. 우당 이회영, 안중근 의사, 단재 신채호. 이 분들이 마지막을 보내신 여순감옥을 처음으로 우리의 답사는 시작되었다. 여순 감옥은 서대문형무소와 놀랍도록 닮아있었다. 유사한 외관과 붉은 벽돌이 주는 인상이 너무나 비슷했다. 여순 감옥에는 위의 세 영웅과 더불어 유상근, 최홍식 두 열사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분들은 한인애국단 활동을 하시다 잡혀 여순감옥에서 광복을 하루 앞두고 일제에 살해당하셨다. 송고한 뜻과 행동에는 경중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늘, 이름이 알려진 분들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지몽매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두 분의 사진과 설명을 보며 독립운동사의 이름없는 영웅(Unsung Hero)들에 대한 추모를 하게 되었다.

여순감옥을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시되어 있는 안중근 의사의 추모관에는 이런 글귀가 비석에 적혀 있었다. 전사불망, 후사지사 (前事不忘, 后事之師). 이준식 교수님은 간단히 말해서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앞날의 스승이 된다' 라는 의미로 이번 답사의 주제라 할 만한 말이라고 설명해주셨다. 답사 내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은 글귀였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관동대법원이었다. 수많은 독립영웅들이 이곳에서 재판이라 할 수 없는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재판정과 자료 영상, 당시의 고문방법들을 소개해 놓은 곳을 둘러보며, 이곳의 재판이야말로 진정한 사법살인이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우리 조 여학생 두 명이 빠르게 답사를 한 뒤 근처 가게로 가기에 혹시나 낯선 땅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보살피려고 따라갔다가 세 명의 대열이탈로 단장님과 팀장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생겼었다.

## | 답사단 기행문 최우수작 |



우리 때문에 단장님은 급히 나오셨고 조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생각에 지금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두 곳을 둘러본 후 근처 식당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무더운 날씨와 너무 강한 맛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답사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음식을 먹었다. 근처에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군함들이 들어서 있는 항구가 눈에 보이고 있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임을 암시해주는 모습이었다. 이것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서 활약하고, 일제가 이곳에 법원과 감옥을 둔 이유일 것이다.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 후 호텔에 짐을 풀고 답사단 발대식을 행하고, 이만열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었다.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무장항일투쟁과 독립군간부 양성기관’ 이었는데, 강의 중 잊을 수 없었던 말씀은 100년 뒤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무언가를 남겨줄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독립정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셨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100년 뒤 다시 그 땅을 찾게 된 우리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처럼,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왔다.

그렇게 첫째 날의 답사는 마무리 되었다.

### Ⅲ. 끊어진 다리

둘째 날, 아침 6시부터 우리의 일정은 바쁘게 시작되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다들 버스에 오른 후, 우리는 이룡양행으로 향했다. 이룡양행은 아일랜드 사람 조지 쇼가 1919년 5월 중국 단동에 설립한 무역선박회사로 비밀리에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 교통국의 역할과 독립운동가의 망명, 독립자금 모집, 무기 반입, 연통제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 곳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일까?

주변의 강대국 틈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며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여 온 아일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조지 쇼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조그만 건물에 간판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인 그곳에서 동병상련이란 말을 떠올리며, 우리는 근처의 압록강 철교를 보기 위해 이동했다.

말로만 듣던 압록강 철교에 도착했으나, 이곳이 분단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는지 철교 뒤로 보이는 하늘은 짙은 회색빛이었다. 일정상 끊어진 철교 위에는 가보지 못한 채, 압록강 유람선을 타고 100m정도거리에 북한이 보이는 곳까지 가까이 간 후 북한 화폐와 담배 등을 파는 중국상인을 보며 씩씩한 미소만 지으며 배에서 내렸다.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중국의 단둥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었고, 북한 땅은 시간이 멈추어 버린 듯 고요했다.

다음 일정은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 졸본성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신흥무관학교의 활동과 그 의의' 라는 주제로 짧은 발표를 하게 되었다. 준비해간 자료보다는 내가 알고 있었던 우당 이회영의 6형제의 망명 과정과 그 후의 그들의 삶을 주로 자세하게 소개하였고, 많이 부족한 발표였으나 김삼웅 부단장님께 준비를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았다. 김삼웅 부단장님은 얼마 전 우당 이회영 평전을 저술하신 분이니 참 영광스러운 칭찬이었다.

졸본성은 현재 중국에서는 오녀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방어하기에는 천혜의 요새였다. 고구려는 평시와 전시에 수도를 다르게 했는데, 졸본성은 전시에 수도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옛터는 규모가 좀 작은 듯이 보였으나, 정상에서 보는 주변의 경관은 탄성을 자아내었다. 힘들게 올라간 보람이 무엇인지 주변경관이 멋지게 펼쳐지며, 시야가 확보되는 것을 보며 왜 이곳을 전시에 수도로 정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졸본성을 둘째날 답사의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는 통화로 이동하였다. 저녁에는 전 독립기념관장을 지내신 김삼웅 부단장님의 '신흥무관학교의 100년의 역사'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우리의 일과는 정리되었다.

#### IV. 新興의 옛 터

셋째 날은 내가 그리고 그리던 신흥무관학교의 옛 터전으로 향하는 날이었다.

밤늦게 조별모임 활동을 하느라 2시간여 밖에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침 일찍 신흥무관학교의 첫 번째 터전 삼원포 추가가로 향하였다. 2일 차부터 점차적으로 들었던 생각이었던 것이 이곳의 경치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가도가도 끝없는 옥수수밭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시골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망국의 한을 가진 채 떠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회영의 6형제와 이상룡 등 신민회 회원들이 이곳을 정착지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나마 이곳에 정착하여 주변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 답사단 기행문 최우수작 |

삼원포 추가가의 신흥무관학교 옛터는 중국인들이 기와공장으로 사용하는 듯이 보였다. 단층 건물이 세워진 곳이 신흥무관학교의 첫 번째 터전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듣고는 예전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이 보이는 그곳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중국인들의 눈을 피해 신흥강습소라 이름 붙이고 옥수수창고에서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생각해보니 마음도 아팠다. 그나마 100년 전에도 같은 모습이었을 대고산이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대고산을 보며 우당 선생이 계셨던 이곳에 100년 뒤 내가 서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7기 답사단원 중에 우당 이회영 선생의 증손녀가 같이 답사를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당 선생을 쫓 빼닮은 이해운씨를 보며, 놀랍고 반가운 마음과 함께 그녀가 느끼는 감회는 남다른 것이라 생각했다.

다음 일정은 장군총, 광개토대왕비, 대왕릉, 5회분5호묘, 국내성터로 이어지는 고구려 유적 답사였다. 답사를 가는 도중 버스 안에서 이어진 한성훈 교수님의 강의는 내가 항상 궁금해했던 것과 맥락이 닿아 있어서 무척 재밌게 들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의 시작을 어디로 보는가와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계기, 그리고 한국근대사의 단편들에 대한 말씀은 정말 흥미있는 강의였다. 버스 안에서 이어진 한국근현대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국의 고대사를 향해 가고 있었다. 학창시절 국사책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그 유적을 직접 보게 된다는 설렘이 가득했지만, 정작 보수공사를 이유로,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관 대립을 이유로, 우리의 답사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

그래도 피라미드와 같은 장군총을 보며 고구려의 기개를 느낄 수 있었고,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일제의 만행을 들으며 분노했고, 5회분5호묘의 서늘한 무덤 속에서 이토록 세월이 지난 뒤에도 남아있는 벽화를 보며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고구려 유적들을 둘러보며 우리의 3일차 답사는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4일차의 메인코스인 백두산을 향해 이동을 했다. 많이 늦어진 일정 탓에 새벽 2시가 되어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고, 말로만 들던 백두산을 간다는 흥분을 가라앉힌 채 잠시 눈을 붙였다.

## V.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넋째 날, 백두산으로 향하는 수없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먼저 우리의 길을 막았다.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줄지어있는 틈을 겨우 넘어서서 우리는 6인승 또는 11인승 차

량에 각기 몸을 맡기고 끝없이 꼬불꼬불 이어진 도로를 따라 백두산으로 올라갔다.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길은 백두산 천지를 위에서 지켜보는 관광코스이고, 천지를 직접 보는 경우는 계단으로 이어진 길을 계속 걸어 올라가야하는 코스를 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일정상의 문제도 있었고, 마침 계단이 붕괴되는 바람에 등반로로는 가지 못했기에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가게 되었다. 한국 사람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백두산 천지를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만 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가 천지에 다다랐을 때는 하늘과 맞닿은 그 곳이 선명하게 보였고, 천지에 비친 구름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평소 사진 찍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도 그 순간을 영원히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지 연신 셔터를 눌렀다. 우연히도 기회가 주어져 존경하는 이만열 교수님과 단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환상적인 모습을 뒤로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답사단원들 모두가 천지를 내려왔을 때쯤 짙은 안개가 갑자기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답사단원들은 모두 3대가 덕을 쌓았는지,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한명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고 행운의 타이밍에 모두 환호를 했다.

환희와 안도의 마음을 가진 채, 다시 안개 낀 백두산을 내려온 후 우리는 장백폭포로 향했다. 장백폭포로 가는 길에는 신기하게도 한 쪽에는 온천수가 나와 이끼가 끼어있고, 한쪽은 너무나 차가운 물이 흐르는 두 개의 작은 냇가가 흐르고 있었다. 멀리서도 보이는 낙차 큰 장백폭포의 모습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폭포 소리에 맡긴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귓속을 울리는 폭포의 시원함을 뒤로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우리는 백운평으로 향했다.

백운평에는 항일독립운동사에 빠질 수 없는 청산리 대첩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청산리 항일대첩기념비가 있었다. 청산리 대첩이라는 것은 어느 한곳에서 벌어진 전투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벌어진 전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곳에서 청산리 항일대첩기념비의 건립과정에 있었던 역사학계의 논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념사전을 찍은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때 학생단장님이 나에게 무엇을 느꼈냐고 물어보셨는데, 나는 조국과 민족이 위험에 빠져 있어도 갈등과 반목은 끊이지 않았던 사례들이 생각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이어지는 것같이 느껴져 슬프다고 대답했다.

일제에 항거한 위대한 전쟁의 기념비에서 나는 오히려 슬픔을 느끼고 내려왔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다.

## | 답사단 기행문 최우수작 |

다음일정을 위해 우리는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연길로 향했고, 답사는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 VI. 별을 노래하는 마음

다섯 째 날이 밝았다. 밤새 조별활동을 하느라 2시간여 밖에 잠을 자지 못한 것이 3일째이나 이상하게도 몸과 마음이 청량한 기분이었다. 아무래도 운동주 시인의 생각을 찾아뵙게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떠서 그러하였는지도 모르겠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잠시 쉬려고 교정을 거닐 때면 늘 마주하였던 것이 운동주 시비였다. 운동주 시비가 세워진 곳의 하늘도 그의 마음처럼 맑고 깨끗하였는데, 그가 나고 자란 곳에서 것처럼 순수한 심성을 길러준 곳의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울지가 너무나 기대되는 일정이었다.

저 멀리 보이는 일송정을 버스 안에서 희미하게 바라본 채, 길가에 서 있는 등 굽은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어보였다. 할머니는 뭐가 부끄러우셨던지 웃으시며 문 뒤로 숨어서 고개만 빼꼼히 내보이셨다. 영락없는 우리네 할머니의 모습이셨다. 낮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거리를 지나,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운동주 시인이 공부한 대성중학교였다. 대성중학교는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곳이었다. 그러한 자부심의 표현인지 대성중학교라는 이름 밑에는 '룡정시청소년애국주의교육기지' 라고 적혀있었다. 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는 그가 실제로 수업을 받았던 곳으로 향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나도 그 교실에서는 그럴듯한 포즈로 한 컷 찍고 싶어졌다. 어색하게도 창밖을 바라보는 포즈로 한 컷 찍은 뒤 서시가 적혀있는 시비 앞에서 다시 한번 시를 읊미하고는 다음 일정을 위해 버스에 올랐다.

운동주 시인의 생각을 찾아가는 길은 비포장도로가 많았다. 텅실텅실 춤을 추는 버스에 몸을 맡긴 채, 어린 시절 시골길에서 보았던 낮익은 풍경들을 눈에 담았다.

나조차도 반가운 풍경인데, 1899년 명동춘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단행한 그들이 보았을 때는 슬픔을 뒤로 한 채 떠나온 고향을 대신할 수 있는 반가운 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으랴.

운동주 시인의 생각은 상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맑고 깨끗한 하늘

이 펼쳐져 있었고, 이곳의 밤하늘은 바람에 스치우는 별이 보일 거 같았다. 문학적 재능은 없지만, 별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못지않은 먼 후배가 찾아온 것을 아시는지, 무더운 햇별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복원된 명동학교와 김약연 선생의 기념비를 둘러보고는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발해를 꿈꾸며 달렸다.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부는 이제 그 옛터와 주춧돌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넓게 펼쳐진 옛터를 통해 과거 그들의 영광을 돌이켜볼 수 있었으나, 느껴지는 건 망국의 쓸쓸한 바람뿐이었다. 상경용천부를 둘러보니, 망국의 후손이 그들의 옛터를 보고 목놓아 울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너무 넓어 끝까지 둘러보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 근처의 흥룡사를 방문하고 다음 호텔이 있는 목단강으로 향했다. 저녁식사 후 '만주 지역 무장 투쟁(독립 전쟁)의 역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이준식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의 핵심은 '무명의 용사를 기억하자'였다.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이름모를 선열들에 대한 추모였다.

## VII.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답사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여섯 췌날의 일정이 되었다. 우리는 여느 날과 같이 아침 일찍 일정을 시작했다. 6일차의 일정은 김좌진 장군의 기념관을 답사하는 것이었다. 우선 김좌진 장군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무르셨던 거주지를 답사하는 것이 처음 일정이었다. 모두 모여 장군의 흉상 앞에서 묵념을 한 후 거주지를 둘러본 후, 나는 김삼웅 부단장님께 그 동안 궁금했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질문도 했다. 부단장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한중우의공원으로 다음 일정을 떠났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한중우의공원 내에 세워진 김좌진 장군 기념관이였다. 난 정말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상황을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을 보았기에 답사를 잘 왔다고 느꼈고, 정형화되고 주어진 지식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다. 상황은 김좌진 장군 기념관을 담당하시는 분의 역사가관이 모든 독립운동단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특정 단체만이 주도적이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만열 교수님은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나와 같이 지식이 많은 학생들이 그릇된 시각을 가지게 될까봐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셨다. 처음에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몰랐지만, 이준식 교수님의 설명과 한성훈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 | 답사단 기행문 최우수작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백범 김구, 우당 이회영, 단재 신채호, 윤봉길 의사 등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유상근, 최흥식 열사, 또는 이름모를 독립영웅 어느 분이 조국과 민족을 덜 사랑했다고 보지 않는다. 독립운동에 있어서 역할 차이가 있었을 뿐, 누가 더 중요하고 또 누가 더 주도적이었는지에 대한 비교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그 공의 크기를 과연 재단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고,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지 단지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몰랐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게 될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과 함께 똑같은 존경을 표하곤 한다.

이러한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특정 인물만을 신격화하고, 과도하게 칭송하며 다른 단체와 인물들에 대한 존중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태도는 잊지 못할 모습이었다. 아울러 역사라는 것은 누군가의 의도대로 해석할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이 내가 진정으로 이번 답사에 참가한 것에 보람을 느끼는 이유다.

잊지 못할 기억과 함께 마지막 답사지인 하얼빈으로 여정을 다시 시작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여 하얼빈 역에 도착했을 때, 하얼빈의 모습은 우리가 지나온 어느 곳보다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그 곳 치안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우리는 짐을 풀고 답사단의 밤 행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 조의 식탁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김석두 씨와 부인이신 김선에 씨, 그리고 한성훈 교수님이 자리를 같이 하셨다. 퀴즈도 열심히 풀고, 연극도 하며, 그 동안 가까워지지 못했던 위 세 분과도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덤으로 우리 조는 전체 2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상금까지 받게 됐다. 7명의 조원이 나누기에 애매한 숫자가 되어버려 나는 상금을 가져가지 않고 동생들 모두 나누어주었다. 해단식 후 답사단원들은 모두 삼삼오오 모여 답사단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겁게 보냈다.

## VIII. 영웅의 향기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의 마지막 날, 우리는 '마루타'로 유명한 731부대를 방문했다.

인류역사상 가장 잔인한 기억을 간직한 그 곳에 이르러 나는 얼굴에서 웃음을 지웠다. 이 곳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곳이었다. 그 동안 찾아본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는 이곳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직접 받아들이는 느낌은 사뭇 달랐다. 서있는 나무조차 싸늘해 보이는 그 곳에서, 나는 사실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지만 조원들을 챙겨야

하기에 곳곳이 전시관을 다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아마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다음 일정을 위해 그 이름도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우리는 답사의 시작과 끝을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곳을 보는 것으로 한 셈이다. 당초 기대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을 기념화했을 줄 알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틀리고 말았다. 지금의 하얼빈역이 예전의 그곳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하얼빈역으로 가지는 않고 따로 마련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그분의 알려지지 않은 사진들과 중국의 다른 인물들이 평가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말들을 보았다.

중국어를 몰라 읽지는 못했으나, 웬지 뿌듯한 기분을 안고 마지막 점심 식사로 만두를 싹껏 먹었다. 공항으로 이동 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는 6박 7일간의 감동과 흥분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 VIII. 강렬한 기억, 그리고 독립정신

20대의 마지막 해, 나의 삶은 기로에 놓여있었다. 계속된 실패로 인한 좌절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이 뒤섞여 있는 심리상태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행동보다는 망설이는 일이, 용기보다는 겁을 내는 일이 더욱 많아지는 나에게 2011년은 시작부터 매우 가혹했다.

정확히 100년 전 이 땅에는 자신보다 조국을 생각했던 훌륭한 학생들이 있었다. 무섭도록 잔인한 시대는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시대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후대에는 같은 슬픔을 주지 않으려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것이 아마도 신홍무관학교의 정신이고, 무명의 新興용사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정신이며, 바로 우리 답사단이 기치를 내걸은 '독립정신' 일 것이다.

2011년, 신홍무관학교의 정신이 이 땅에 펼쳐진 지 100년이 되는 해의 6박 7일의 기억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나는 변했다는 것을 느낀다. 자신감도 잃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은 나에게 답사의 기억은 가슴 깊숙이 있던 뜨거운 의지를 다시 꼬집어내었다.

나의 의지 역시 다시 한번 新興하여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눈앞에 다가왔던 100년 전의 기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후세에게 남겨줄 수 있는 또 다른 100년을 만들기 위해 현재를 살아갈 것이다. ☺

## 나의 獨立精神 답사기!



임 대 현  
서강대학교 사학과 4학년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밑도 끝도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시험 기간의 어느 날이었다. 교내 학생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네. 임대현 씨 되시나요?”

“예, 맞는데요.”

“임시정부기념사업회입니다.

이번 답사단에 뽑히셨어요. 여권과 입금 준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 이렇게 통화는 마쳤는데 멍했다. 그저 한 과목, 한 과목 시험공부에만 매진하던 나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독립정신 답사기는 시작되었다.

이번 답사는 대련에서 출발하여 단둥, 환인, 삼원포, 집안, 백두산, 연길을 거쳐 하얼빈에서 마무리 되는 6박 7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을 떠나 처음 대련에 도착하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작고 한적한 공항이었지만 앞으로 시작될 답사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푼 가슴을 안고 공항을 나온 우리는 곧장 버스

에 올라탄 뒤 여순 감옥으로 향했다. ‘여순일아감옥구지(旅順日俄監獄舊址)’라고 적혀있는 건물의 입구를 들어서자 뽕 둘러싸인 높은 담장이 우리를 바깥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켰다. 그 옛날 이곳에 갇혔을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감옥의 내부 시설과 분위기는 국내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순 감옥의 부지와 규모가 보다 크고 넓었다는 것이다. 서대문 형무소가 많이 축소되어 보존되는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만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독립 운동가들이 많았던 탓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중근 의사의 유품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던 독방과 순국 장소로 추정되는 건물이었다. 아직까지 그 유해조차 찾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감옥의 어느 전시관 비석에 적혀있던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앞날을 위한 가장 좋은 가르침이다’라는 글귀는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감옥과 가까이 위치한 일제의 과거 법원 건물을 방문했다. 이곳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일제의 판결을 받았던 매우 역사적인 장소이다.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차마 다시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끔찍한 고문도구들이었다. 글자 그대로 ‘만행’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일제의 잔혹함이 그 당시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알게 된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

이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중국에서의 첫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저마다 앞서 감옥과 법원 건물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느끼게 될 점들에 비하면 첫날의 답사는 그저 맛보기에 불과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호텔을 나와 바로 이룡양행으로 향했다. 아일랜드 출신의 사업가였던 조지 쇼가 우리 독립 운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과정에서 그 기지 역활을 담당했던 이룡양행의 건물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남아 우리를 반겨주었다.

건물 앞에서 간단하게나마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를 많은 현지인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문득 과연 저들은 이 건물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버스에 올라탄 우리는 말로만 듣던 압록강 철교를 향해 이동하였다. 얼마 가지 않아 버스는 강변을 달리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그 강이 압록강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어댔다. 서울에서 늘 보던 한강과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였지만, 우리는 압록강이 우리에게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버스는 철교 근처에서 멈췄고, 우리는 유람선을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유람선 2층으로 올라탄 우리는 저 앞으로 보이는 위화도와 강 건너 보이는 북한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앉아서 우리에게 손 흔들어 주던 아저씨, 강물로 시원하게 먹을 감던 아이들, 강변 주변을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와 꼭 같은 모습으로 생긴 사람들이었다. 주변에 자란 나무들과 건물에 적혀있던 문자도 우리가 어디서나 보던 가로수였고 한글이었다. 통일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질 때쯤, 배는 조·중우의교와 단교를 돌아 우리를 선착장에 다시 내려주었다.

이후 우리는 조금 오래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고구려의 옛 산성이었던 오녀산성에 올랐다. 산꼭대기에 위치한 산성에 가기 위해서는 수 백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는데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며 산을 타야 했다. 하지만 그 고통도 잠시, 정상에 올라 산 밑으로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지자 우리는 언제 힘들어 했냐는 듯 힘차게 카메라를 꺼내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오르기조차 힘든 산 정상에 도읍의 터가 남아있는 것은 전시(戰時)를 대비한 하나의 비책이었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산 밑의 평지에서 생활하다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곳에 올라 생활하며 적과 싸웠던 것이다. 우리는 대륙을 호령한 고구려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국력을 키워나갔음을 되새기며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에 탄 우리는 신홍무관학교의 옛터를 확인하기 위해 삼원포로 이동하였다. 학교 설립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었지만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학교의 터를 찾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신홍무관학교가 있던 자리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의 독립 운동사에 있어 이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생각하며 학교의 설립자 및 졸업 학생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학교 터의 뒤로 자리 잡은 산 위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땀 흘리며 훈련했을 선열들을 생각하니 그저 감사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이었다.

신홍무관학교 터에서의 기념 촬영까지 마치고 나서 삼원포를 빠져나온 우리는 집안으로 이동하였다.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이곳에서는 국내성 터, 장군총, 광개토대왕비, 오회분 오호묘 등을 볼 수 있었다. 먼저 국내성 터의 경우에는 수 년전 중국의 도심 개발로 보존이 위

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있는 것 같아 안심이었다. 다음으로 둘러본 장군총과 광개토태왕비를 통해서 대륙을 지배한 고구려의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 유적들이 내뿜는 아우라가 주변의 노을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며 우리를 전율케 하였다. 하지만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등 중국 측의 예민한 관리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고, 따라서 이곳이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역사적 장소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들른 오회분오호 묘에서는 고구려 벽화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우리와 같은 관람객들 때문에 점차 훼손되어가는 벽화의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버스에 올라탄 우리는 그 순간부터 다음 날 백두산에 오르기 위한 여정에 돌입하였다. 위험천만한 시골길을 요리조리 달리며 우리를 겁주기도 하였던 버스는 새벽 3시가 되어 서야 백두산 기슭의 호텔에 도착하였다.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산을 오르기 위해 아침 일찍 기상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재빨리 눈을 붙였다. 이윽고 아침이 밝자마자 식사를 간단히 마친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라 백두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아침의 날씨는 화창하고 좋았지만 버스에 함께 탄 가이드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천지의 날씨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산 밑의 날씨가 제 아무리 좋아봤자 천지를 볼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우리는 백두산에 도착하였다. 천지까지는 지프차를 타고 올랐는데, 꼬불꼬불한 산길을 너무나 터프하게 운전하던 현지 기사 덕분에 마치 놀이기구를 탄 기분으로 산을 오를 수 있었다. 산을 오르며 차창 밖으로 날씨를 살폈으나 안개는 점점 짙어지기만 해서 어찌면 천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프차가 정상에 도착하던 순간, 거짓말같이 안개가 사라지며 천지로 오르는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

천지와와의 극적인 만남이었다. 왜 이제야 왔냐며 안개를 거두어준 천지에게 그저,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이후 우리는 천지에서 약 한 시간 가량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차마 글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천지의 장엄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우리는 말없이 저마다 가져온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민족의 영산에서 보낸 황홀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이윽고 천지와 작별할 시간이 다가왔다. 산을 내려가기 위해 줄을 선 우리 뒤로는 다

시 또 거짓말같이 짙은 안개가 드리워졌다. 마치 천지 역시 우리와의 이별을 아쉽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다음에 이 산을 오를 때는 남의 나라 중국이 아닌 우리 땅, 우리 길을 밟고 오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산을 내려왔다.

천지를 내려와서는 천지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한 장백폭포로 향하였다. 폭포에 다다르기 전에는 계란을 삶아서 먹을 정도의 뜨거운 물이 샘솟는 신기한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그곳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세차게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 즉 장백폭포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조금 전 보고 내려온 천지의 물이 폭포가 되어 쏟아져 내리는 것이라는 가이드의 말에 천지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은 달랠 수 있었다. 우리는 폭포 아래에서 사진도 찍고 발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들고 올라간 콜라병을 재빨리 비우고 폭포수를 담아 내려왔다.

이후 남은 일정 동안 우리는, 독립 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던 청산리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청산리 항일대첩기념비, 운동주 시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대성학교와 명동촌, 발해의 옛 수도였던 상경용천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의 거주지, 하얼빈에 위치한 과거 731 부대 등을 답사하였다. 이를 통해 청산리 전투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운동주 시인의 외조부인 김약연 목사가 나라의 독립과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 어떻게 명동촌을 개척해나갔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안내판에서부터 ‘동해’와 ‘일본해’ 표기에 대한 치열한 역사적 다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던 상경용천부에서는 드넓은 평지에 대국의 수도를 정한 옛 발해의 영광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마지막 날 오전에는 하얼빈 시에 남아있는 일제의 731부대 터를 찾아 다시금 아픈 역사의 흔적을 되새기게 되었다. 자신들의 저질렀던 과거의 잔혹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던 일부 일본인들의 인터뷰가 전시실을 둘러보던 우리의 아픈 가슴을 그나마 조금 위로해주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양쪽 벽에 빼곡하게 새겨져있던 복도를 걸으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더운 날씨와 입에 잘 맞지 않는 기름진 음식,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빽빽했던 일정 탓에 많이들 힘들어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답사지에 도착할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역사를 배우려 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드넓은 대륙 곳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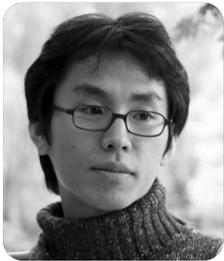
에 흠어져 있는 그 많은 독립 운동 유적지와 우리 역사의 흔적을 살피기에 6박 7일의 일정은 너무나도 짧고 아쉬웠다. 하지만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6년, 7년 교과서를 읽으면서도 배우지 못했던 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의 우리와 이 나라를 있게 해주신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우리 역사의 유물·유적에 대한 감동 이 모든 것들을 가슴 한 켠에 가지고 돌아옴과 동시에 또한 그 곳에 남겨두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살피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의 답사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우리가 배우고 돌아온 '독립정신'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한 또 다른 답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정신 화이팅을 외치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름다웠고, 앞으로도 아름다울 것이다. 📷





# 영화 <비우티풀>, 세계 속의 삶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영화 <비우티풀 Beautiful>(2010)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신작으로 그의 네 번째 장편 영화이다. 감독의 전작들, <21그램 21Grams>(2003), <바벨 Babel>(2006)을 비롯한 작품들이 여러 인물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교차하는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영화 <비우티풀>은 한 캐릭터의 한 가지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내고 있다. 영화의 이야기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교외 빈민가를 배경으로 한다. 중년 남성 옥스발은 지금은 아프리카 세네갈인과 중국인들 같은 이민자들의 거주지역인 산타 콜로마에 살고 있다.

그의 직업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중개하는 브로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이혼한 채 혼자서 어린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성실한 아버지이기도 하다. 어느 날 그는 암선고를 받고 자신이 불과 몇 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옥스발에게는 비밀스럽게도 죽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기에 그의 현실은 이미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겨울 뿐이다.

제작 노트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감독의 기획은 ‘한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시점’에서 ‘주인공만이 내러티브를 형성해가는’ 방식의 현대적 비극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다. 다소 현란했던 영화적 형식미를 가진 전작들에 비해서 <비우티풀>은 확실히 고전적이고 단선적인 이야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적어도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고자 할 때 어울리는 차분한 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영화가 가지는 진지함, 그 무거운 시선이 가지는 힘의 또 다른 근거는 이것이 단지 이야기만이 아닌 같은 세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에 있다. 감독은 같은 제작 노트에서 ‘유럽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현실’을 말하며 모든 도시의 빈민가마다 형성된 이주 노동자들의 ‘인간 별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고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기가 맞닥뜨린 노동착취 구조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배경과 소재가 된 바르셀로나 교외지역의 빈민계층은 상징적이기도

하다. 20세기 중반 파시즘 정권의 이주정책으로 사회적 희생양이 된 가난한 샤르네고스(까탈로니아어를 주로 쓰는 바르셀로나 지역에 살게 된 까스티아 스페인어를 쓰는 소수민들을 낮춰 부르는 말)의 거리들은 21세기에, 이제 불법 이주한 세네갈인들이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거리 '바리오 치노'로 바뀌어진 것이다.

그 거리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바는 사회적 모순이란 역사적이며, 그것은 여전히 서로 동화되지 못한 이주민들의 모습처럼 세계 속에서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의 표현대로 영화 속 옥스발이 가진 어두운 표정 속 근심의 '소용돌이'는 단지 가족 안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바깥의 현실로 뻗어나간다.

하지만 영화에서 두드러지는 감독의 개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화 속에서 갑작스런 경찰의 단속으로 세네갈 친구가 추방되고 중국 노동자들이 머물던 창고에서의 사고, 그리고 이혼한 아내 마라브라와의 재결합 등 복잡한 문제들이 옥스발에게 일어나는 과정에, 문득 어린 시절 죽은 아버지의 존재가 선명하게 그에게 다가온다.

과연 옥스발 자신은 어떤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아니 그전에 감독이 이러한 질문을 옥스발에게 던질 때 감독의 의중은 무엇일까. 왜 옥스발은 죽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볼' 수 있을까. 우선 감독은 그의 전작들부터 계속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를 동전의 양면처럼 우연한 사건의 연속들 사이로 배치하고, 그러한 찰나의 인연을 때로는 한 가족, <21그램>이나 세계 속, <바벨>에서 연결했다. 그의 이야기는 항상 그러한 '짧고 미미한 삶의 영속성' 들에 대한 것이었다.

다만 <비우티풀>에서 감독이 달라진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적어도 조금은 더 진중해져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꼼꼼한 각본 작업만큼이나 하비에르 비에템이라는 철저하고 헌신적이며 비교할 수 없는 스크린의 무게감을 가진 배우와의 오랜 협업의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과시적 이미지들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영화 <비우티풀>에는 어떤 시선에 대한 자못 지나치기도 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 과연 죽은 자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죽은 이들을 바





라보는 것은 옥스발인가 아니면 관객들일까. 창고 속에서 준비한 죽음을 바라봐야 할 때 우리는 시선에 대한 어떤 기준을 넘어서 버리고 있다. 어쩌면 너무나 잘 영상 문법의 언어들을 다루는 감독이기 때문에 혹시 모든 이야기들이 보여질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볼 수 없고 보지 말아야 할 이미지들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스스로의 양식만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영화적 이미지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 거친 비유로써 마치 완전한 문장의 산문이 결코 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삶과 죽음 혹은 현실과 피안이라는 미묘한 경계를 다루는 도중에 감독은 때론 가시적 이미지들에 쉽게 의존해버리는 것 같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영화가 21세기의 고전으로 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또다른 문제일 것이다.

마지막 영화의 결말에서 옥스발은 그가 떠난 후 자신의 아이들을 맡길 사람으로서, 양극성 장애 문제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충실치 못한 아내 마람브라가 아니라 남편의 추방으로 의지할 곳이 없이 홀로 아기를 키우게 된 세네갈

출신의 젊은 어머니 이해를 선택한다. 과연 그러한 옥스발 혹은 감독의 결정은 어떤 희망의 메시지일까 아니면 삶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일까. 그 결론을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세계 속에는 여러 가지 삶들이 각각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해 역할의 배우로 캐스팅 된 디아리아투라는 세네갈 출신의 아프리카 여성이며, 실제로 영화 속의 이야기와 같이 바르셀로나에서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멀리 세네갈의 남편과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그녀와 같은 여성상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의 '마마 아프리카'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러한 이주 노동자와 가족의 이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적지 않았다. 최근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낙원은 서쪽에 있다>(2009)와 마이클 윈터 바텀의 <인 디스 월드 In This World>(2002), 켄 로치의 <빵과 장미 Bread and Roses>(2002) 등을 다시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 백하 김대락 선생님께!



이 항 증  
이상룡 선생 증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금년이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향각지에서 기념행사와 전시회가 계속되는 중에 145년 전 불란서가 강탈해간 외규장각(강화사고)도서가 대여라는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돌아왔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마 타는 즐거움을 알면서(人知座輿樂) 가마 멘 사람 어깨의 고통은 알지 못하고(不知肩輿苦) 우물 물을 마시면서 우물 판 사람 노고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서울 쪽에서 우당 육형제가 중심이 되었고 또 영남선비가 그 주류를 이루었는데, 영

남의 혁신유림을 이끄신 분이 백하 선생님이셨습니다. 망명 전까지 비서(賁西)라고 호를 쓰시다가 압록강을 건너 백두산 아래 정착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백하(白下)라고 호를 고치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송(김동삼)의 白西農場도 백두산 서쪽 독립운동기지를 표현하듯이, 독립운동가가 경북에서 제일 많이 서훈되었고 그 중에도 안동은 많은 독립투사가 나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선생님의 행적을 조금만 안다면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할



▲ 백하 김대락 선생의 고택 「백하구려」 전경

것입니다. 망명당시 선생님은 65세로서 퇴계학통의 최고 장석(長席)이었고 경술국치를 당하자 한없이 통곡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선왕조에서 벼슬을 하고 후한 국은(國恩)을 입은 관료들이 대부분 매국노로 변절하여 그 대가로 일왕의 많은 은사금을 받고 왕실을 겁박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때 학자이신 선생님은 분연히 나라수호에 앞장서시었습니다.

이 때 선생님은 영남학파를 이끄는 큰 스승이어서 선생님의 일거일동은 국치 이후 영남선비의 진로를 판가름하는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의성 김씨의 명문가문이었고 당시 덕망과 지식과 재산을 제일 많이 가진 최고의 기득권자로서 노구를 이끌고 구국투쟁에 앞장서 망명의 발길을 재촉하니 많은 선비가 따랐습니다.

“ 선생의 망명 일기인 《서정록》을 보면 손부와 손녀가 산월이 임박하여 흑시라도 일제가 통치하는 국내에서 출산하여 일제(日帝)의 신민이 될까봐 영하 30°의 추위를 무릅쓰고 걸음을 재촉하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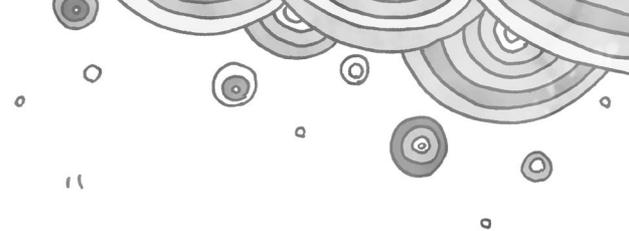
”

선생의 망명 일기인 《서정록》을 보면 손부와 손녀가 산월이 임박하여 흑시라도 일제가 통치하는 국내에서 출산하여 일제(日帝)의 신민이 될까봐 영하 30°의 추위를 무릅쓰고 걸음을 재촉하였다고 합니다.

일제의 지배를 벗어나 압록강을 건넌 후 출산한 것이 통과하여 증손자 이름을 쾌동(快童), 쾌당(快唐)이라는 아명(兒名)을 지었다고

하니 여기서 선생님 정신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애국정신이 안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하게 된 토양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노구를 이끌고 스스로 앞장서니 문하에서 교육받은 제자 및 인아친척(姻婭親戚)이 모두 선생을 따라 망명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일행 중에 후일 대한민국 국민회의 의장을 역임한 일송(김동삼), 남북협상회의 의장을 역임한 선생의 차자(次子) 월송(김형식) 조카 김규식, 김성로 등 이름이 알려진 독립투사만 해도 수 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의 초석을 놓고 1914년 조용히 가셨습니다. 유해는 유하현 남산에 장사지낸 후 자손들이 후일을 위해 호리병 안에 글을 써서 무덤 앞에 묻어 두었다고 하는데 벌써 백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선생님께서 그렇게나 사랑하던 조국의 국권은 회복되었으나 국토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버렸고 만주 땅은 상전벽해가



되었습니다. 자손은 남북으로 갈리어 연락조차 안 되고 선생의 무덤은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가신 후 평생을 함께하던 동지 석주(이상룡), 척서(이봉희), 담옹(이승화) 등 많은 일행들이 그곳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고, 막내 여동생 김락(1863~1929)여사도 시아버지(이만도)단식순절, 남편(이중업) 파리장서, 자신이 삼일만세운동에 참여 일제의 모진고문으로 두 눈을 실명하였고 두 아들(이동흙, 이중흙), 사위(김용환)가 독립운동가란 이름만 남았고 조카뻘 되는 일송(김동삼)은 왜적에게 체포되어 자기나라를 사랑했다는 죄로 자기 나라 감옥(서대문감옥)에서 처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시며 “나라 없는 몸 무덤 있어 무엇하나.”라고 하며 무덤을 못 쓰게 유언하였습니다. 국권이 회복된 후 수 십 년이 지나 국립현충원에 옷과 유품을 모아 장사 지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경학사 신흥학교 백주년 행사를 하면서도 선생님의 희생정신을 본받지 못한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독립을 방해한 무리들이 자신의 행위는 반성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세상을 오염시키며 분단을 이용하여 서로 상대방 핑계만 대고 있으니 역사가 온전하게 복원되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매부되는 임청각 석주의 증손자입니다. 최근 조상의 글을 정리하였는데 석주께서 선생님에게 올린 시가 수 십 편에 이르고 서신 또한 많으며 60년 이상을 함께하고 서거할 때 까지 잠시만 떨어져도 문자의 왕래가 있었으니 구국운동의 모든 방략이 선생의 뜻이 들어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며 석주께서 선생님에 대한 만사를 다시 음미하는 뜻에서 올립니다.

■ 만사 백하 김대락 선생

오래된 청구 땅에 굳센 민족  
역사 유구한 반만년이네.

“저희들이 오늘날 경학사 신흥학교 백주년 행사를 하면서도 선생님의 희생정신을 본받지 못한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독립을 방해한 무리들이 자신의 행위는 반성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세상을 오염시키며 분단을 이용하여 서로 상대방 핑계만 대고 있으니 역사가 온전하게 복원되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適者生存의 지금에 와서  
무슨 연유로 이 씻을 길 없는 수치를 안고 있는가.

하찮은 몸이 이 목숨 버리는 건 쉬운 일이니  
한 걸은 문전 앞이 바로 물가라네.  
쓸개는 있어도 맛보지 않고 췌이 있어도 눅지 않고  
부질없이 살아가는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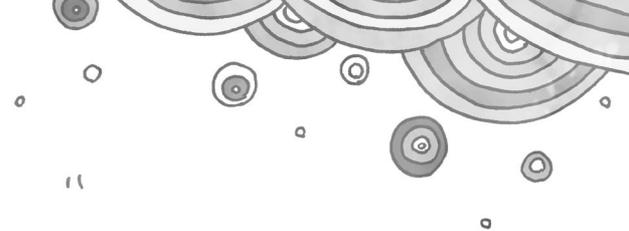
백발을 훔날리며 조국을 떠나던 발자취  
서쪽 땅 풍설을 무릅쓰고 찬 지팡이에 의탁 했네.  
조국 강산아 잘 있고 슬퍼하지 마라.  
봄이 돌아오면 무궁화 이 땅 에서 상봉하리라.

추가가 결사하여 민권을 장려할 적에  
문인 무인 선비 벼슬아치 등 두루 한 자리에 모였네.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은 훌륭한 청년들이라.

이웃이 울고 들이 곡하여 모두 비관적이지만  
풍토가 다른 이방에서 오만 생각을 제거 하네.  
오직 바라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몇 년을 더 빌려주어  
광복이 되어 좋은 시절이 돌아오는 것을 목도하는 것일 뿐이네.

우연히 작은 감기가 더욱더 위태로워 져서  
황천의 문이 닫히자마자 만사가 무너졌네.  
산 위에 달을 바라보니 한이 한량이 없나니  
야심한 이 시각 오직 자규(子規)만이 내 마음 알리라.

더불어 도를 강구하고 글을 논한지 오십 년이 되었고  
서쪽으로 온 것은 하물며 생사를 함께 하는 인연임에랴



공이 돌아감에 아직은 내가 장송함이 있지만  
 내가 떠나는 날에는 그 누가 눈물 흘려 주리요

선생님께서서는 타국 땅 망명객이 되어 1914년 귀천하신 후 과욕을 부리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1945년 8월 원자탄 한방으로 무조건 항복을 하여 일본으로 돌아가므로 조국은 해방을 맞이했으나 국제정세는 냉정하여 美.蘇양국은 38° 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분단시켜서 자기들의 영향 아래둠으로 한국전쟁의 씨를 뿌려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5년 후 발발한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우리민족에게 엄청난 수난을 가하고도 통일은 안되고 증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망명동지인 선생의 믿음직한 아들 월송(김형식1878~1950)께서는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신의주에서 서울행 기차표까지 샀으나 혁명 동지이던 김두봉(1889~1960)이 평양역에 마중 나와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으니 하루라도 유하고 가라는 말에 일행을 먼저 보내고 하차했다가 남북길이 막혀 영영 돌아오지 못 했습니다.

먼 후일 중국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연로하여 금강산 휴양소에서 휴양하다가 6.25의 참상을 보고 피 흘려 찾은 나라가 동쪽끼리 다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것을 보고 상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죽음을 예언하는 시를 한수 남기었는데, (月松의 사위인 북경의 이태형씨의 증언)내용이 심상치 않아 여기 옮겨봅니다.

■ 금강산에 올라(登金剛山) 金衡植

“금강산에는 당연히 신선이 있어야 하는데 /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네.  
 / 나의 흰 머리카락 구름위로 솟아오르니 /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신선이라고 하네.  
 (此山應有仙 肉眼不辨容 白髮雲從看 人謂我神仙)

이 시를 지은 후로 월송은 금강산 신선이 되었다는 말이 퍼졌다고 합니다.

경술국치(1910년)후 김대락, 김형식 부자 분은 경상도 안동 땅 임하면 천전리 내 앞마을에서 일족을 이끌고 타국으로 망명길에 올라 한분은 동북삼성 남산의 신령이 되었고 한 분은 금강산의 신선이 되었으니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집도 1932년 석주(이상룡)께서 흑룡강성 서란현에서 서거하시었는데 이 무렵 일본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에서 쫓겨난 부의를 찾아내어 일본을 위한 허수아비 만주국 황제로 만들어 놓고 중국황제의 이름을 빌려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니 독립투사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서 일부는 중공군에, 일부는 지하로 들어가고, 저의 집은 죽음을 각오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일본이 지배하는 국내에서는 그들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어 매일 험박당하다가 오지인 산골로 은둔했는데도 그곳까지 찾아와 십년을 하루같이 일제에 협조할 것을 강요당한 동구(石洲의 아들 李濬衡의 호)는 “일제치하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은 하루의 수치만 더 쌓일 뿐이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자결했는데 이때가 1942년 9월 대동아 전쟁이 치열할 때였습니다.

철저하게 망해버린 저의 임청각 유족은 다시 50년이 지난 후 고택을 정리하는 중 동구 선생의 유서를 발견하고 지금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사이에서 남북이 비록 통일여건은 성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기 위한 남북 ‘역사공동연구’는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방홀지쟁(蚌鷸之爭)을 하다가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근년에 선생님께서 출생한 내 앞 마을에는 안동 독립기념관이 들어섰으며 선생님의 고택은 재건하여 수리를 마치고 가산서당은 독립기념관 안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비록 남북이 정치적으로는 분단 상태에 있으나 한말 외세에 대한 저항정신은 동북 아세아에서 찬란한 자취를 남겨 놓았습니다. 역사에는 일시적인 후퇴가 있더라도 결국은 바로 갈 것이니 멀지 않은 장래 정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동안 유족들이 선생님을 그리는 추모의 정을 금할 수 없어 수년전 청송군 진보면 산록에 무덤을 만들고 연년이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주 땅 남산에 있는 선생의 혼령과 금강산 신선이 되어있는 월송 양선생의 혼령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어 영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후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현지 탐방을 앞두고 100년만에 쓰는 편지인 이 글을 쓰면서 나라를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며, 선비정신은 또 무엇이기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타국 땅에서 목숨까지 바치고 떠도는 영혼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후인들이 이분들을 잊어버린다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천벌을 받으리라. (㉠)

# 장강일기 (정정화 지음)

:: 양자강 푸른 물결위에 실린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정정화 여사는 1900년 8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나 열한 살 나던 해에 대한협회 회장을 지낸 동농 김가진 선생의 아들 김의한과 결혼한다.

21세 되던 해 이미 중국 상해에 망명해 있던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를 따라 상해로 탈출함으로써 중국에서의 망명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곧 임정밀사의 자격으로 독립운동자금 모금의 밀령을 띠고 지하 조직을 통해 국내에 잠입, 은밀히 밀령을 수행한다.

1차 국내 잠입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국경을 넘나드는 동안 이십대 꽃다운 나이를 모두 보낸 그녀는, 1932년 윤봉길 의사 폭탄 투척 사건으로 임정 요인들과 함께 상해 프랑스 조계를 탈출, 망명정부를 뒷바라지하면서 해방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대륙의 피난길을 떠돌게 된다. 중경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으며 이미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아낙네가 된 그녀는 전쟁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조국에 발을 디디었으나 다시 6·25를 겪으면서 남편이 납북되고 가족이 흩어지는 와중에 부역죄로 구속 기소되어 투옥되고 만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흘러 그녀는 그녀가 겪어온 100년 남짓 쓰러린 세월의 모든 것을 비로소 증언하고, 1991년 한많은 생을 마감한다.

한국의 잔다르크라 불리우는 정정화가 지은 「장강일기」는 1998년 처음출간 되었으며 금년 2011년 8월 15일 재출간 되었다. (주)

# 서간도에 들꽃 피다 (이윤옥 지음)

❖ **아들아 목숨이 경각인 아들아 칼이든 총이든 당당히 받아라**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20인 《서간도에 들꽃 피다》 출간

“아들아 / 옥중의 아들아 / 목숨이 경각인 아들아 / 칼이든 총  
이든 당당히 받아라 / 이 어미 밤새 / 네 수의 지으며 / 결코  
울지 않았다 /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 /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 / 그 보다 더한 영광 없을 지어니 / 비굴치 말고 / 당  
당히 / 왜놈 순사들 호령하며 생을 마감하라”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애국지사는 그런 마음으로 사형  
수 아들의 수의를 지었을 것이다. “아들의 죽음을 앞둔 어미의  
심정이 어찌 흔들리지 않았으랴! 그러나 조마리아는 결코 흔들리  
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안중근은 그런 어머니의 꺾이지 않는 정신을 배웠던 것이다. 평소 백범 김구선생의 어머니인 곽  
낙원 여사와 우애 좋게 지내던 조마리아 여사는 곽낙원 여사가 김구에게 엄하게 대했던데 견주어  
아들 안중근에게 평소 자애로운 어머니로 알려졌다. 그러한 어머니가 자식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는 매우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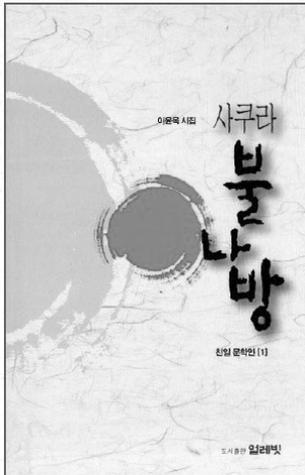
위 시와 조마리아 애국지사에 대한 설명글은 민족시인으로 알려진 이윤옥 씨가 써서 “도서출판  
얼레빗”을 통해서 펴낸 《서간도에 들꽃 피다》에 있는 내용이다.

이윤옥 시인은 시집 머리말에서 자신이 출강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여성독립운동가를 아는  
대로 써보라고 했더니 거의 백지로 냈더라고 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이 시인은 여성독립운동가를  
온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수많은 자료를 찾아 이 시집을 내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현재 보훈처 기록에 훈포장을 받은 여성 애국지사는 202명인데 이분들은 남성 애국지사(12,000  
명)에 견주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 시인은 머리말에 쓰고 있다.

이 시집에서 시인은 춘천의 여성의학장 윤희순, 임신부의 몸으로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  
신,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쓴 남자현, 안동의 독립운동가 3대를 지키고 그 자신도 만세운동으로  
잡혀가 두 눈을 잃었던 김락 애국지사를 비롯한 스무 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추모하는 시와 삶의  
여정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가)

# 사쿠라 불나방 (이윤옥 지음)

∴ 친일문학인 20인의 풍자시집 《사쿠라 불나방》



“거기 그 거울 속 / 오래전부터 누님 함초롬히 앉아 계실 때 / 동백기를 사들고 찾아 간적 없는 / 매정한 오라비 / 오장마쓰 이 송가로 / 호주머니 두둑이 엔화 받아 들고 / 물오른 걸음 할 때 / 인자한 내 누님 / 일본군 총칼 앞에 치마 들리고 / 쿠투 치쿠호 탄광 벽에 / ‘배가 고프다 / 내 고향 경북 상주/ 어머니 보고 싶다’ / 쓰던 막내 동생 죽어 갔었지”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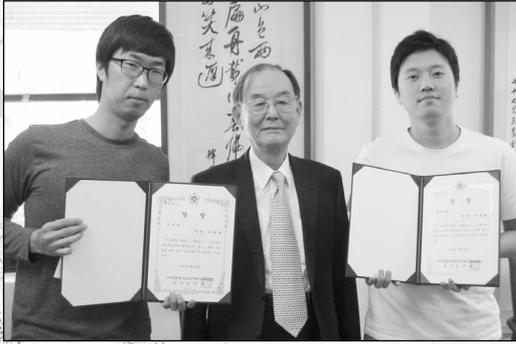
위 시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풍자하여 시인 이윤옥 씨가 쓴 시다. 일제강점기 일본제국주의를 향해 ‘아버이의 나라’, ‘나의 조국’, ‘일본인을 분반자’, ‘태평양전쟁에 어서 참여하라 조선의 청년이여’ 등 갖은 아양을 떨며 불나방처럼 붉은 입장기를 향해 뛰어들었던 변절자들이 있었다. 무지한 백성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고 만주 벌판으로 독립운동 하러 떠나는 판에 친일문학인들 곧 《사쿠라불나방》들은 조국의 현실에 눈감고 일제에 빌붙어 일신의 안위를 구걸했다. 이 친일문학인을 풍자하고 그들이 어떻게 친일했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는 이윤옥 시집 《사쿠라 불나방》이 도서출판 열레빗에서 나왔다. 위 시는 서정주를 풍자한 “오장마쓰이를 위한 사모곡” 일부로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책은 시집이지만 단순한 시집은 아니다. 책에는 모두 20명의 변절 문학인이 나오는데 맨 먼저 그들의 대표적인 행적을 풍자한 시로 시작한다.

그리고는 그들의 친일 이력을 쓴 뒤 친일 작품을 소개하고, 몇몇 작가는 좀 더 알아야 할 내력을 “더보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윤옥 시인은 위 시처럼 정신대 할머니와 강제징용자를 통한 통렬한 풍자시를 써서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 또 더보기 등을 통해 보여주는 친일문학인들의 행위에 우리는 쓴 웃음을 짓거나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 일례로 김동인이 광복 두 시간 전 조선총독부를 찾아가서 “황군작가단”을 만들자고 아부하던 일, 이광수가 누구보다도 앞장서 창씨개명을 하면서 늘어놓았던 변명, 미제를 타도하자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가 광복 뒤 미국인들에게 빌붙어 아부하던 모윤숙 얘기 등은 독자를 놀라게 한다. (㉠)



## 제 7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시상식



2011년 9월 22일(목) 오전 11시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우수작 시상식”이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실시됐다. 수상자는 최우수상에 정광형(연세대 법학과 4학년)군과 우수상에 임대현(서강대 사학과 4학년)군이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 정경모 선생 출판기념회

지난 9월 24일 동경 YMCA에서 재일 언론인 이자 통일 운동가 정경모 선생의 일어판 자서전 <역사의 불침번> 한일 합동간행기념회가 본회의 김자동 회장, 임재경 부회장을 비롯하여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 「독립정신」산악회

10월 독립정신 산악회는 1박 2일(10월 22일~23일)일정으로 경북 상주(채의진고문댁 방문)를 다녀왔다. 22일 단양 콘도에서 1박후 23일에는 상주의 채의진 선생님댁을 방문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산악회원들에게 직접 만드신 작품을 선물해주셨다.

「독립정신」산악회 안내는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를 통해 매일 공지되며 산을 사랑하는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1년 9월, 10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9월	10월
강만길	20,000	
강재욱	20,000	20,000
강찬모		20,000
곽태원	50,000	50,000
권상윤	10,000	10,000
권순갑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김경애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김광재	5,000	5,000
김동현	10,000	10,000
김보성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김삼웅		10,000
김선근	10,000	10,000
김성록	2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김연실	10,000	10,000
김영림	30,000	30,000
김용덕	30,000	10,000
김용수	5,000	5,000
김원규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김위현	50,000	50,000
김자동	100,000	100,000
김재철	100,000	100,000
김재홍	10,000	10,000
김정인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김정욱	50,000	
김중배	20,000	20,000
김중숙	10,000	10,000
김진경	5,000	5,000
김진모	20,000	20,000
김진영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김판수	5,000	5,000
김학근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김희선	10,000	
남만우	30,000	30,000
노시선	30,000	30,000
류동연	5,000	
류시경	30,000	30,000
문재선	30,000	
민항선	10,000	
박경국	10,000	10,000
박녹삼	10,000	
박두곤	10,000	10,000
박아영	10,000	10,000
박양수	10,000	10,000
박원표	50,000	50,000
박은봉	30,000	30,000
박익란	30,000	30,000
박인석	10,000	10,000
박경근	30,000	30,000
박형순	10,000	10,000
반병률	10,000	10,000

회원명	9월	10월
백낙청	10,000	10,000
백영미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서영훈	30,000	30,000
서중석		100,000
서훈관	30,000	3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신명식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신영한	10,000	10,000
신준수	20,000	20,000
심재경	100,000	
심재권	30,000	30,000
안영찬	5,000	5,000
양인선	10,000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엄기남	50,000	50,000
염승훈	10,000	10,000
오승수	10,000	10,000
오영은	30,000	30,000
오은주	20,000	20,000
오정수	20,000	20,000
오화수	20,000	20,000
우상호	30,000	30,000
원영애		30,000
유기수	10,000	10,000
유은숙	10,000	10,000
유원목	20,000	
윤경자	30,000	30,000
윤영소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윤한택		
이규중	30,000	30,000
이규호	30,000	30,000
이두엽	20,000	20,000
이두희	30,000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이상훈	10,000	
이상배	10,000	
이영국		10,000
이영숙		10,000
이영후	30,000	30,000
이용규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이원혁	100,000	100,000
이응국	5,000	5,000
이인석	10,000	10,000
이말선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이정재	50,000	
이종락	30,000	30,000
이중찬	100,000	100,000
이창복	20,000	20,000
이창중	20,000	20,000
이희노	20,000	20,000
이학효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이해준	20,000	20,000
이해숙	10,000	10,000

회원명	9월	10월
이호현	20,000	20,000
임재경	4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장은기	20,000	20,000
장필순	10,000	10,000
정홍성(두영으로 발행)	20,000	
전창일	20,000	20,000
정동익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정범구	30,000	30,000
정재경	10,000	10,000
정지완	5,000	5,000
정철승	120,000	30,000
정환기	10,000	10,000
조기식	10,000	
조명수	10,000	10,000
조세현	20,000	20,000
조영록		50,000
조영빈		5,000
조용준	30,000	30,000
조인형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조회환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주철기	30,000	30,000
천정배		10,000
최낙현	20,000	20,000
최문성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최병욱	10,000	10,000
최영진	10,000	10,000
최정식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홍순권	10,000	10,000
황승일	10,000	10,000
홍승현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 2011년 9월, 10월 기념관회비

회원명	9월	10월
차영조	40,000	40,000
최기창	10,000	10,000

### 2011년 9월, 10월 특별회비

회원명	9월	10월
(주)오토 오디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2,000,000	2,000,000
권영철	100,000	

◆ 입회원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의립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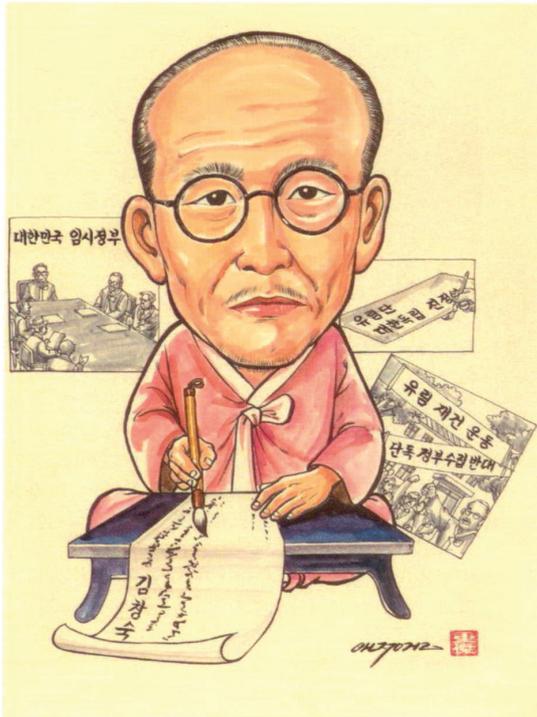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    )월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항일



김창숙 (1879~1962)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청참 오적소(請斬五賊疏)>를 올리고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오적을 처단할 것을 극력 주장하였다. 삼일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청원서를 만들어 유림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파리평화회의에 제출하였다.

이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내부 조정에 힘썼다. 무장항일단체인 서로군정서를 세워 선전위원장이 되었고 1924년에 주만(駐滿)독립군 군사고문을 맡았다. 1927년 4월 2차 유림단사건으로 상해에서 체포되어 징역 14년을 언도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이 시기에 옥중투쟁과 일제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두 다리가 마비되었다. 해방 후 유림재건에 힘써 1946년 유도회(儒道會) 총본부위원장과 성균관장을 겸임하였고, 그 해 6월 성균관대학교 설립을 인가받아 초대총장에 취임했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였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자 독재와 부패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사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친일

정만조 (1858~1936)



을미사변과 관련하여 진도로 유배되었다가 1907년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자 사면되어 규장각 부제학이 되었고, 현종과 철종 대의 <국조보감(國朝寶鑑)> 편찬위원으로 일했다.

일제 강점 후에 친일유림의 거두가 되었고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일제의 역사왜곡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1925년 6월 조선사편수회가 개편되자 다시 위원으로 선임되어 1935년까지 장기간 활동했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 감수위원으로서 일제의 침략정책 사실을 은폐하고, 일제가 이른바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으로 실록을 편찬하는 데 기여했다. 1929년 총독부 직속기관인 경학원 대제학이 되었고 명륜학원 총재를 겸임하였다. 경학원은 총독부가 조선 유도(儒道)를 식민통치의 교화수단으로 이용하고자 만든 대표적인 친일유림기구였다. 이 외에도 시중회 평의원, 조선교화단체연합회 이사 등 친일단체 간부를 지냈고 일본천황을 기리는 한시를 남겼다. 그 공로로 1912년 일한병합기념장, 1928년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 • • • •  
정치경제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 석간 내일신문을 보십시오! 명쾌한 해답이 나옵니다.

경영으로 자립한 신문  
그래서 성역 없는 비판이 가능한 신문  
바로 석간 내일신문입니다.

물가폭탄 · 전세대란 · 유가급등으로 체감민심은 바닥인데, 대통령 지지도는 40%에 가깝습니다. 체감민심과 대통령 지지도 사이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석간 내일신문을 구독하십시오. 석간 내일신문은 2010년 한국조사학회의 조사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민심읽기에 정평이 나았습니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집니다. 미국 · 중국 · 러시아의 대선 또는 권력교체가 예정된 해이기도 합니다. 격변하는 2012년 정치정세, 누가 한국호의 미래를 이끌고 갈지 알고 싶습니까? 석간 내일신문을 구독하십시오. 석간 내일신문은 각종 선거보도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경제적 독립으로부터 나온다'. 2009년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나온 명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내일신문은 국내 중앙일간지 중 올해까지 15년 연속 흑자를 낸 유일한 신문입니다. (주)내일신문은 2010년 현재 액면가의 259%를 주주에게 배당한 '경영에 강한 신문'입니다. 내일신문이 쌓아온 경영적 성과는 '성역없는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주)내일신문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석간내일신문 외에도 지방화 시대 지역사회 생활정치的主역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24개 지역내일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볼 수 없는 생생한 지역정보, 바로 내일신문의 자랑입니다. (주)내일신문은 대학생 대상 발행부수 1위, 열독률1위인 **대학내일**과, 주부들을 위한 **미즈내일**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  
내일신문은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안내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석간 내일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내일신문** 구독신청: 02-2287-2300